

碩士學位請求論文

人物畫와 標準化 性格診斷 檢査를
이용한 group dynamics의 比較 研究

指導教授 夫 賢 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美術教育專攻

梁 東 烈

1995年 8月

人物畫와 標準化 性格 診斷 檢査를 이용한 group dynamics의 比較 研究

指導教授 夫 賢 一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5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美術教育專攻

提出者 梁 東 烈



梁東烈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5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審査委員

審査委員

梁 東 烈
梁 東 烈
夫 賢 一

<抄錄>

人物畫와 標準化 性格 診斷 檢査를 이용한 group dynamics의 比較 研究

梁 東 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美術教育專攻

指導教授 夫 賢 一

본 研究의 目的은 國民學校 教育現場에 對人 相互作用을 調整함으로써 集團內 개인의 性格改善을 圖謀하는 동시에 집단의 活動力을 向上시키기 위한 집단의 人的環境을 把握하는 方法으로 人物畫 技法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標準化 性格檢査와 일본의 오오모도시게루 박사가 개발한 人物畫 檢査와의 關聯性을 찾는 데 있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國民學校 여자어린이 90명 남자어린이 105명으로 구성된 집단에 標準化 性格檢査와 人物畫 檢査를 동시에 실시하여 나타난 結果를 比較分析하고 또한 相關計數로서 두 檢査의 關聯性을 증명하였다. 그 相關性은 우리 與件에 맞는 人物畫 技法을 開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檢査結果, 똑같은 解釋이 나오지 않았지만 비슷한 解釋을 내릴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나왔다. 여기서 두 心理檢査의 性格要因이나 象徵符號의 意味가 서로 獨立的인 別個의 特性을 지닌 因子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서로 비슷한 結論을 내릴 수 있는 餘地가 있었다는 것은 큰 成果라 할 수 있었다. 이를 보다 數值的으로 證明해 보이기 위해 相關係數로서 關聯性을 분석한 결과 標準化 性格檢査의 性格要因 EST와 人物畫 N符號, SOC와 S, C符號, SUP와 S符號가 서로 의미있는 相關關係가 있다는 結果가 나와 우리나라 標準化 性格檢査와 人物畫檢査가 그 性格要因 및 象徵符號에 있어서 部分的으로 相關關係가 있다는 結論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몇가지 提言을 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人物畫 分析規準이 開發되지 않았는데 하루속히 우리 教育與件에 맞는 人物畫 分析規準이 開發되었으면 한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인물화에 관한 現場 研究가 매우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 보다 많은 現場研究가 이루어져 人物畫에 대한 體系性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본 논문은 199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目 次

I. 序 論	1
1. 研究의 必要性和 目的	1
2. 研究의 制限點	3
II. 理論的 背景	4
1. 兒童畫의 發達過程	4
2. 人物畫와 性格에 關한 研究의 概觀	7
3. Group dynamic의 定義	14
4. 集團의 形成	15
5. Group dynamic의 理論과 研究方法	16
III. 研究方法	20
1. 對 象	20
2. 測定道具	20
3. 實施節次	20
4. 分析內容	21
5. 資料處理	24
IV. 結果 및 解釋	25
1. 標準化 性格檢査	25
2. 人物畫 檢査	35
3. 標準化 性格檢査와 人物畫檢査 結果의 比較	43
4. 標準化 性格檢査와 人物畫 檢査의 相關關係	45
V. 要約 및 結論	48
1. 要 約	48
2. 結 論	50
* 參考文獻	52
* 附 錄	54
* 英文抄錄	63

表 目 次

〈表 1〉 우리나라 어린이 남녀별 그림 소재	9
〈表 2〉 分析規準에 등장한 상징부호의 출현수	22
〈表 3〉 상징부호와 그 의미	22
〈表 4〉 標準化 性格檢査의 尺度別 問項數	23
〈表 5〉 妥當性 척도에 대한 학년 및 남녀별 점수	25
〈表 6〉 性格要因別 點數分布	26
〈表 7〉 性格要因別 平均과 표준편차	30
〈表 8〉 남자 어린이의 性格要因間 相關關係	32
〈表 9〉 여자 어린이의 性格要因間 相關關係	33
〈表 10〉 전체 어린이의 性格要因間의 相關關係	34
〈表 11〉 學年別 問題指標 頻度 分布	35
〈表 12〉 상징부호별 출현수 및 평균	37
〈表 13〉 分析規準別 출현빈도	39
〈表 14〉 受檢者 30% 이상 채점된 分析規準	43
〈表 15〉 남자 어린이 檢査 結果에 대한 相關關係	45
〈表 16〉 여자 어린이 檢査 結果에 대한 相關關係	46
〈表 17〉 전체 어린이 檢査 結果에 대한 相關關係	47

I. 序 論

1. 研究의 必要성과 目的

우리가 지금까지의 教育을 反省해 보고 내일의 새로운 教育을 展望해 볼때, 우리에게는 잘못된 教育이 많았고 잃어버린 教育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했던 것은 다름아닌 人間性回復의 실패였다. 客觀的 眞理를 전달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主觀的 眞理를 심어주는데는 실패하였으며 정직이 무엇이나를 說明하는데는 성공적이었으나 정직할 수 있는 人格을 가꾸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많았다.

人本的 教育(humanistic education) 論者들의 주장에 의하면, 오늘의 教育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科學的인 方法과 能率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이에 정신을 너무 빼앗겨서 敎材를 機械的으로만 처리하려는 경향때문에 ‘人間不在’와 ‘敎育不在’ 現象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¹⁾

교사는 이와 같은 教育적 危機를 모면하기 위해 學業은 力學的 全體로서 움직이는 것²⁾임을 주지하고 진정한 의미의 ‘人間을 形成하는 專門家’가 되어 學生들의 知能·適性·學力뿐만 아니라 group dynamics를 바로 파악함으로써, 對人相互作用을 조정하고 集團內 個人의 性格 改善을 圖謀하는 同時에 集團의 活動力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집단은 어떠한 분위기 집단에 소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人格形成’이 左右되기도 한다.³⁾

集團에 關한 研究에서 최근 집단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집단

1) 李洙德의 (1984), 「現代敎育學 概論」, 敎育出版社, p. 58.

2) 東京敎育大學 敎育學研究室 編(1975), 「敎育學大典」, 宇南書館 敎育學研究室, p. 876.

3) 金貞圭·金王煥(1986), 「敎育心理學」, 螢雪出版社, p. 248.

성원들 간의 心理的 關係를 연구하는 이른바 group dynamics(集團力動)라는 학문이 발달되고 있다.⁴⁾ 카아트라이트(D. Cartwright)와 젠더(A. Zander)는 group dynamics의 중요한 과제를 集團成員 個人間, 個人과 集團, 그리고 집단과 집단간에 생기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여 그 원만한 관계를 찾는 것이 group dynamics의 과제라 말하고 있다.⁵⁾

이러한 group dynamics를 유치원이나 국민학교에서는 人物畫를 통해 알아 낼 수가 있고 集團間의 比較도 가능하다.⁶⁾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물화란 아동화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의 그림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학교 현장에서 group dynamics를 살펴보기 위해 보다 어린이들 입장에서 부담없고 좋아하는 主題인 人物畫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우리 어린이에 알맞는 인물화 分析規準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김재은이 이를 개발하려는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해 우리와 정서가 비교적 비슷한 동양권인 日本의 人物畫 分析規準과 우리나라 標準化 性格檢査와의 關聯性을 살펴보았다. 本 研究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信賴度와 妥當度가 인정되어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性格檢査法과 日本의 오오모도시게루(大件茂) 박사가 日本의 被驗者에 대해서 實驗檢討를 거쳐 그 研究結果를 臨床的으로나 研究用으로 쓰고 있는 人物畫에 의한 性格診斷法을 같은 집단에 동시에 실시하여 나타나는 結果를 比較 分析해 보고 그 關聯性을 찾아 보는 것이 目的이고 이를 위해 檢査結果에 대한 상관계수, 평균, 편차를 통계처리하고 檢査結果에 대한 판정과 해석을 위해, 인물화와 성격진단에 관한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게 될 인물화 분석규준에 本 研究의 결과가 현장실험의 자료로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4) 金貞圭·金王煥(1986), 前掲書 p. 234.

5) D. Cartwright, and A. Zander (1960), Group Dynamics : Research and Theory. Evanston, Ill. : Row, Peterson, p. 6.

6) 金在恩(1984), 「그림에 의한 아동의 心理診斷」, 教育科學社, p. 306.

검사대상 어린이들의 성격검사와 人物畫는 다음과 같이 分析 처리하였다.

첫째, 標準化 性格-診斷檢査의 실시 結果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를 구해 group dynamics를 分析하였다.

둘째, 人物畫檢査 結果에 따른 문제지표, 상징부호, 출현빈도, 분석규준별 출현빈도를 구해 group dynamics를 分析하였다.

셋째, 標準化 性格檢査와 人物畫 檢査에 나타난 結果를 서로 比較 分析하였다.

넷째, 性格診斷 檢査의 性格要因과 人物畫 檢査의 象徴符號間의 相關關係를 相關係數로서 糾明하였다.

2. 研究의 制限點

本 研究는 다음과 같은 制限點을 갖고 있다.

- 1) 人物畫 檢査 과정에서 採點 點數가 採點者의 主觀에 따라 다소 差異가 있을 수 있다.
- 2) 本 研究의 對象은 特定한 都市 地域의 아동들로 限定하였기 때문에 結果를 一般化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II. 理論的 背景

1. 兒童畫의 發達過程

아동 미술의 研究에 있어서 가장 發達된 部分이 兒童의 美的 表現 發達 段階論이다.⁷⁾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어떤 段階로, 어떤 藝術的 特徵을 나타내며 성장해 가는데 대한 經驗的 體系인 研究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다른 외국의 經驗을 참고하여 研究나 指導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發達心理學的인 觀點에서 봤을 때, 아동의 發達年齡에 따라서 그 그림의 特徵이 변해가는 樣相이 다를 뿐더러 각 단계마다 매우 흥미 있는 特徵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초기의 心理學者들은 수많은 아동화를 연령별로 분류해간 결과, 각 발달 연령에 따라서 공통된 樣式과 傾向을 發見하게 되었고 여기서 아동화의 發達過程을 밝혀내게 되었다.⁸⁾

그림을 통한 발달에 관한 여러 學說이 1800년대 후반에 싹트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약 100여 학설이 있으나 가장 一般화된 것만 따져도 10여개로 압축시킬 수 있다.

이들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빅터 로웬펠드(Victor Lowenfeld)의 發達 段階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Victor Lowenfeld의 分類

V. Lowenfeld는 “兒童을 理解하고 그들의 創造的인 成長을 촉진하기 위하여 藝

7) 金春一(1985), 「兒童美術論」, 미진사, p. 116.

8) 金在恩(1984), 「그림에 의한 아동의 心理診斷」, 教育科學社, p. 45.

術의 敎育은 무서운 潛在力을 가지고 있다. 모든 아동은 독특하다. 따라서, 아동은 一般의인 成長에 관련된 創造的인 表現의 발달을 理解한다는 것은 아동의 어떤 큰 성취라든가 혹은 작은 人間적인 완수에 動機를 줄수 있을 것이다”라고 前提하고⁹⁾ 아동의 美的表現 發達段階를 6段階로 구분하였다.¹⁰⁾

(1) 亂畫期(Scribble of Stage ; 2~5歲)

亂畫(Scribble)란 未成熟者 내지는 유아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描畫의 狀態를 뜻한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인가를 그린다는 目的 보다는 손의 筋肉運動과 그 結果로 생긴 선들을 발견하고 즐기는 것이며, 그것이 발전되면서 回轉形態가 나타나게 된다. 이 回轉運動은 좌우·상하로 연결되면서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진행된다. 또한 유아들은 단순한 筋肉運動으로 이루어지던 亂畫를 점차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 표현으로 의미를 부여하려는 象徴的 活動을 하기 시작한다.

(2) 前圖式期(Pre-Symbolic Stage ; 5~7歲)

최초의 事實的 表現期이다¹¹⁾ 이것은 亂畫期에서 나타나는 無意識的인 表現過程 으로부터 처음으로 意識的인 시대로 접어드는 時機이다.¹²⁾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感情적으로 그들의 本능 욕구에 의하여 그리고 싶은 意慾만을 表現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연필이나 그 밖의 재료를 지배하는 能力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形象을 그려내지 못한다. 또한 전도식기에는 난화기의 表現에 무의미하리 만큼 그려진 線感覺으로 부터 脫皮하여 차츰 원에 가까운 형태가 나타나게 되

9) Vitor Lowenfield(1964), Creative and Mental Growth, The Macmillan Company, pp. 115~133.

10) 金正(1991), 「兒童의 美術敎育研究」, 創知社, pp. 114~115.

11) 金春一(1985), 前揭書, p. 117.

12) 金正(1991), 前揭書, p. 148.

는데, 완전한 원이 아닐지라도 팔의 운동에 따른 回轉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¹³⁾

이 시기는 대개 사람의 모습을 많이 그리는데 사람의 모습은 머리는 원으로 팔 다리는 긴선으로 표현한다.

(3) 圖式期(Symbolic Stage ; 7~9歲)

이 시기가 되면 알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 하며 인간과 사물을 분별하고 집이나 나무 사람등이 한 줄의 선위에 그려지게 된다.¹⁴⁾

事物의 概念을 習得하는 시기로 사물에 대한 感覺이 知覺을 이루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여러번 얻어질 때 하나의 概念(Conception)으로 형성되며 그것이 그림에서 圖式的, 象徴的으로 표현된다. 또한 이 時期는 他人의 도식을 引用하여 模倣하기 쉽다. 또한 形式化된 概念이 反復됨으로 해서 생각하는 方法을 남에게 依存하게 되고 그로 인해 表現運動에 있어서 柔軟性を 喪失하기 쉽다.

(4) 黎明期(Gang Age ; 9~11歲)

도식화 되었던 線描法에서 점차 脫皮하여 客觀的이며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시기이다.¹⁵⁾ 이 시기의 아동들은 視知覺이 어느 정도 발달되므로 거의 객관화된 상태에서 事物을 觀察하려는 傾向이 있다.

(5) 擬寫實期(Pseudo-Realism ; 11~13歲)

실물같이 표현하려고 하나 충분한 사실적 표현을 못하는 시기다.¹⁶⁾ 外界 認識的 知能에 表現機能이 따라 가지 못하는 시기이지만 論理的 사고의 증가로 지

13) 上揭書, p. 150.

14) 崔宗寅(1985), 「兒童美術指導」, 螢雪出版社, p. 63.

15) 大韓教育聯合會(1986), 「창의적 그리기 지도 방법」, p. 52.

16) 金澤龍(1976), 「兒童美術教育의 現場理論」, 한겨레출판사, p. 48.

적인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며 지각이 발달하는 때이다. 모든 묘사는 운동감이 풍부해지며 3次元의인 立體表現이 가능하게 된다.

(6) 思春期(Adolescence Stage ; 13歲 以後)

진정한 의미의 創造的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기이나 이 시기의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그림에 대하여 흥미를 잃어버린다. 이 時期에 어린이가 興味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한 많은 研究가 必要한데 V. Lowenfield는 盲人 어린이와 弱視 어린이, 그리고 正常적인 어린이의 그림을 比較, 研究하여 視覺形(Visual type)과 觸覺形(Haptic type)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다른 그림 지도를 해야한다고 하였다.¹⁷⁾

이 視覺形의 표현은 대상을 皮相的, 描寫的, 知的으로 표현하려는 특징이 있는데 대상의 전체를 표현하되 부분의 印象을 모두 모아 종합적으로 조직하려 하고 外面的, 客觀的 모방적 표현을 한다. 촉각형으로 느낀 것을 그리는 一種의 抽象的 경향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內面的이고 感覺的, 自我表現的인 특징을 갖는다.¹⁸⁾

2. 人物畫와 性格에 關한 研究의 概觀

1) 人物畫 研究의 歷史

人物畫를 心理檢査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은 1926년에 인물을 그리게 함으로써 지능발달의 수준을 판정하려는 「人物畫에 의한 知能測定」을 발표한 구디나프(Goodenough, F. 1926) 여사가 최초일 것이다.

이 방법이 또한 아동의 性格(personalty) 診斷을 위한 投射法으로 발전하게 된

17) Victor Lowenfield(1964), op. cit., pp. 258~262.

18) 全國教育美術教材 編纂會(11985), 「美術教育」, p. 145.

것이다.¹⁹⁾ 이와 같은 성격진단 도구로서의 인물화 검사에 대한 연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맥코버(K. Machover)의 「人物畫에 투영된 形象」(personality projection in the Drawing of Human Figure III·Thomas, 1949)²⁰⁾이란 論文인테 개인은 그가 그리는 인물화 속에 그의 性格의 중요한 方面을 診斷하는 方法을 밝혔다. 1952년에는 레비(Levey, S·1950)가 「Figure Drawing as a Projective Test」를 발표하여 “인물화란 自由概念의 透寫이고 그 環境에 있어서의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한 態度의 透寫이고 理想的 자기 이미지의 透寫이고 外의事情의 結果이고 습관 형태의 表示이고 情緒的 色調의 表示이고 시험자나 그 狀況에 대한 被驗者의 태도의 透寫이다. 즉 一般的으로 生活이나 사람에 대한 그의 태도 표시”²¹⁾라고 요약했다.

1952년에는 졸즈(Jolles, I, 1952)가 인물화를 분석하는 틀을 발표하여 인물화에서 볼 수 있는 여러가지 특징의 상징적 의미를 상세히 강조했다. 인물화 방법을 상당히 유망한 技法으로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1954년대는 블럼(Blum, R.H. 1954)이 「The Validity of the Machover DAP Technique」를 발표해서 맥코버의 人物畫의 타당성에 대해 비판했다.

1956년 일본의 오오모토 시게루(大伴茂)박사는 일본인 被驗者에 대해 實驗檢討를 거쳐 그 研究結果를 臨床的으로나 研究用으로 사용하고 있다.

2) 人物畫 技法의 理論的 根據

아동의 性格을 진단하기 위해서 특별히 인물화를 그리게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19) 金在男(1984), 前掲書, p. 262.

20) 金正(1989), 「兒童繪畫의 理解」, 創知社, p. 356.

21) 金在男(1984), 前掲書, p. 263.

첫째, 아동이란 무엇이든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라고 하면 대개는 인물을 그린다. 이것은 어린이란 자기몸의 이미지를 제일 먼저 생각하다는 것이다.

表1. 우리 나라 어린이 남녀별 그림 소재

主 題 \ 區 分	男 兒		女 兒		計
	數	%	數	%	
집 (교 회 , 건 물)	56	25.9	54	24.3	110
꽃	1	0.5	10	4.5	11
로 켓	9	4.2	1	0.5	10
자 동 차	21	9.7	2	0.9	23
인 물(본 인)	21	9.7	67	30.2	88
생 활	38	17.6	45	20.3	83
풍 경	12	5.6	25	11.3	37
동 물	5	2.3	4	1.8	9
불 명	16	7.4	7	3.2	23
초 인 간	9	4.2	—	—	9
해물(海物), 선박, 바다	9	4.2	1	0.5	10
전 쟁	8	3.7	—	—	8
화 재 및 사 고	3	1.4	—	—	3
기 차	2	0.9	—	—	2
비 행 기	6	2.8	2	0.9	8
음 식 류	1	0.5	4	1.8	5
계	216명	100	222명	100	438명

資料：金正(1985), 幼兒美術指導, p. 317.

표1은 남녀별 그림 소재를 살펴본 것이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여자 어린이인 경우는 인물이 1순위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으며, 남아인 경우는 3순위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어, 인물화로 主題를 정하는 것이 一種의 制約처럼 생각되지만 거의 制約을 받지 않는 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인물화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깊은 題材인만큼 靜物이나 風景보다도 친근하게 느껴지므로 想像畫내용속에서나 寫生畫 내용속에서도 인물을 많이 표현하는 것이다.²²⁾

둘째, 전통적인 主知論者들에 의하여 아동은 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그린다고 했고, 반면 아른하임(Rudolf Arnheim, 1976)은 게슈탈트학파의 입장으로 아동은 보는대로 知覺하는대로 그린다.²³⁾고 反論을 提起했다. 여하튼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림 그리기란 분명히 리얼리스틱(realistic)한 課業인 것은 사실이다. 즉 유아가 그린 인물을 보면 어른이 볼때 단순한 圓이고, 손이나 발의 位置나 數가 不完全해도 유아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인물인 것이다.

어린이는 그 그림에서 자기가 意味하는 바를 느끼기도 하고 發見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때 아동의 인물화는 어린이의 心理把握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째, 觀察에 의하면 어린이는 자기 몸의 큰 缺陷을 그림에 表示한다고 한다. 어릴때부터 한쪽 다리가 짧은 아이는 언제나 한쪽 다리를 짧게 그린다는가, 다리가 불완전한 身體的 條件에 있는 아이는 절음발이의 인물을 그리든가, 차를 타고 있는 인물을 그리든가 하는 예를 찾아낸 해리스(Harris, 1963), 힌리치(Hinrich, W. E) 등의 研究들이 나와 있다. 즉 표시된 그림은 몸의 이미지로써의 特徵이 있고, 몸의 이미지는 自己關心의 복잡한 반성 즉 自我이미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2) 崔聖淑(1991), “圖式화된 人物表現의 矯正 指導에 關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圖光大學校 教育大學院, pp. 7~8.

23) 金春一(1984), 前揭書, p. 43.

네째, 인물화에는 머리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손, 발, 몸통, 어깨, 목, 신체 각 부분에 따라서 自我이미지가 나타나는 樣相이 달라진다. 그래서 身體 各部分의 均衡 狀態나 그 표현의 여러가지 모양, 모습이나 年齡, 服裝등에서도 마음의 상태를 추리해 가는 것이 가능한 것 같다. 이점이 다른 자유화 보다도 인물화가 自我이미지의 더 좋은 표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根據이다.²⁴⁾

3) 描畫解釋의 基礎理論

(1) 空間象徵 理論

空間象徵理論은 본래 筆跡學에서 사용되어진 理論인데 묘화의 用紙라고 하는 空間중에 어느 영역이 特別한 意味를 象徵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Grunwald의 空間圖式, Bolander의 공간도식등이 있는데, Grunwald의 空間도식에 따라 한가지만 해석을 하면 인물이 용지의 오른쪽 上段에 그려졌으면 積極的이고 能率的인 특성으로 볼 수 있고 왼쪽 下段에 그려졌다면 幼兒期에로의 固着이나 의존도가 높다는 解釋을 할 수가 있다.

(2) 年齡에 의한 描畫의 發達

年齡에 의한 묘화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유아기에서 성인으로 성장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묘화의 樣相이 변화하는데 이 과정을 이해하여 描畫를 解釋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세살난 아이가 同體를 그리지 않았거나, 네살짜리 이이가 同體와 발을 그렸지만 어깨와 손을 그리지 않은 것은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취학 후의 아동에게서는 이

24) 김재은(1984), 前揭書, pp. 263~266.

런 인물화를 거의 볼 수가 없다. 또 인물화의 同性像이 몇 等身(신장/두부)인가를 조사해 보니, 유치원생이 4.26等身, 5학년이 4.46, 6학년이 4.60, 대학생이 5.74의 等身으로 변해감을 알 수 있다.²⁵⁾

이처럼 묘화의 여러가지 狀態를 보면, 성인이 幼少期의 아동이 그리는 것 같은 인물을 그리면 精神的인 어떤 問題點을 갖고 있다거나 모자란 정신상태에 있다고 推論할 수 있다.

(3) Graphic Communication의 象徵性

Graphic Communication은 다른 심리 테스트와 다른 중요한 측면을 갖고 있다. Graphic Communication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언어말고 그림이라는 media에 의해서 傳達하려고 하는 것으로 H. T. P²⁶⁾를 활용한 것이다.²⁷⁾

사람은 그림에 언어로는 적절히 표현할 수 없는 意思, 葛藤, 感情등을 표현한다. 慾求를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感情, 慾求등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는 特色이 있다.²⁸⁾

4) 人物畫의 解釋過程

人物畫 檢査의 해석과정은 全體的 評價, 形式分析, 內容分析의 3가지의 解釋課程으로 나눌 수 있다.²⁹⁾ 이것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어서 명확히 區別할 수는 없다.

25) 高橋雅春·高橋依子(1972), 「人物畫テスト」, 文教書院, pp. 28~30.

26) J. Buck(1970), The House-Tree-Person Technique (Revised Manual), Cali.,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27) 金正(1989), 前掲書, p. 357.

28) 高橋雅春, 高橋依子(1972), 前掲書, p. 31.

29) 上掲書, p. 23.

(1) 全體的 評價

그려진 인물화를 全體的으로 보고 描畵에서 얻어지는 全體的인 印象을 重視하여 검사자가 直觀的으로 피검사의 描畵의 意味를 把握하는 것이다. 즉 인물화의 意味를 이해하는 평가로, 전체적인 평가를 올바르게 하려면 많은 인물화 검사의 經驗과 形式的 內容의 分析과 서로 관련하여 해석해야 함은 물론 主觀的 意味에서의 直觀的 印象을 지나치게 중시하지 않도록 한다.

인물화를 評價할때, 이 인물화를 그린 피험자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思考해서, 무엇을 呼訴하려 하는가 또 이 피험자는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며 또한 外界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감지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때 우선 다음과 같은 점을 느낄 수 있는가 없는가를 意識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① 協助的이고 適切, 솔직히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가, 警戒的, 自己防禦的, 자기를 抑壓 隱蔽하거나 誇張해서 暴露的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② 풍부한 에너지를 적절히 統制해 힘있게 섬세히 그려져 있는가, 에너지가 약하고 無氣力했거나, 에너지를 統制를 잃고 粗雜하게 그려져 있는가.

③ 均衡이 잡히고 안정되어 調和的, 自然的으로 그려져 있는가, 아니면 정리되지 않은 線이나, 空虛, 奇妙하게 그려졌는가를 全體的 評價에서 感知해야 한다.³⁰⁾

(2) 形式分析

그림의 構造分析으로 描畵의 크기, 筆壓, 用紙上의 描畵의 位置, 抹消의 程度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分析法이다.

30) 上揭書, p. 23.

(3) 内容分析

내용분석은 묘화의 課題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人物畫의 경우는 인물의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強調해서 그리고 무엇을 無視하거나 생략했는지, 또한 무엇이 歪曲해서 그렸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강조의 경우에는 인물의 어느 부분의 크기가 컸다거나 濃度가 짙게 그려졌다거나 몇번 고쳤다거나 하는 것들이 보여진다. 생략의 경우는 인물의 特定部分의 크기가 작다거나 열게 그려졌다거나 필요한 構成部分의 一部가 그려지지 않았거나 전혀 그리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³¹⁾

3. Group dynamics의 定義

Group dynamics란 말은 group의 집단이란 뜻과 dynamics의 힘·활력이란 뜻이 합성되어 집단의 힘내지 집단의 활력이란 직역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사회학적인 학문체계의 한 종류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集團力動, 集團力學, 集團動學으로 번역이 되어 쓰이고 있다.

Group dynamics에 관한 理論은 많은 社會學者, 人類學者, 社會心理學者들의 學問的 興味에 의해서는 물론, 실제적 問題解決을 위한 관심에서 더욱 그 발달이 촉진되었다.³²⁾

Group dynamics이란 용어를 1930년대 레윈(K. Lewin)이 처음 사용한 이래 이 뜻에 대해서는 많은 解釋이 있어 왔다. 첫번째 견해는 規範的인 성격을 띤 것으로 집단이 어떻게 조직되고 행동하여야 하는가를 group dynamics으로 보는 것이다. 民主的 리더쉽, 構成員의 參與, 全般的인 協力등이 강조된다. 두번째 견해는 group dynamics를 여러 技法들 즉 役割演技法, 브레인 스토밍(brain storming) 感受性 訓練 相互作用 分析 등의 집합으로 보는 것이다. 세번째 견해는 집단의 내부적인 성격의 관점에서 보아 집단이 어떻게 형성되며 집단의 構造와 機能은 어떠한가,

31) 上掲書, p. 24.

32) 朴容憲(1975), 「學校社會」, 培英社, p. 175.

그리고 집단은 어떻게 움직이며 그 구성원이나 다른 집단 또는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집단의 거의 모든 면을 다루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³³⁾

이러한 견해들로 비추어 group dynamics는 集團構成員들간의 全體的 相互作用과 이 相互作用으로부터 派生되어지는 均衡과 變化를 연구하는 것이고³⁴⁾ 집단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집단성원들간의 심리적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³⁵⁾

4. 集團의 形成

人間集團은 광범위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고 또한 그만큼 연구의 가치가 있는 社會體系이다. 집단이라는 용어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자신의 대부분을 投入시키는 결사와 活動의 類型들을 포함한다.³⁶⁾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집단을 형성하려고 하는가? 집단형성의 理由를 다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³⁷⁾

첫째, 人間은 安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단을 형성한다. 인간은 社會的 動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혼자 孤立되어 있을 때 가장 不安을 느끼게 되며, 이와같은 不安은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 해결된다. 이런 개념은 근로자들의 勞動組合의 結成이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勤勞者들은 不安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不安을 解消하기 위해 勞動組合을 結成하게 된다.

33) 朴運盛(1988), 「現代組織行動論」, 博英社, p. 220.

34) 이장호·김정희(1992), 「집단상담의 원리와 실제」, 법문사, p. 20.

35) 朴容憲(1975), 「學校社會」, 培英社, p. 181.

36) 張仁協·李貞淑·金隆一·曹興植·鄭珍英 共譯(1988), 「人間行動과 社會環境」, 集文堂, p. 171.

37) 朴乃會(1990), 「組織行動論」, 朴英社, pp. 218~219.

둘째, 人間은 다른 사람과의 相互作用 때문에 집단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財産이 많아도 職場을 계속다니는 것은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相互作用을 통해 社會的 慾求를 充足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슷한 특성을 가졌거나 편리한 거리에 있어서, 자주 만나게 되면 서로 人間關係가 친밀해지고 더욱 人間關係를 돈독히 하기 위해 公式的인 모임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세째, 人間은 어떤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社會的 名聲이나 威信을 얻게 되기 때문에 집단을 형성한다.

네째, 人間은 特定の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단을 형성하기도 한다. 집단을 통해 個人이 혼자서는 성취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때 집단의 형성은 매우 유용하다할 수 있다.

5. Group dynamics의 理論과 研究方法

集團에 대한 學問的 研究의 歷史는 비교적 짧은 편이나 다양한 理論的接近과 研究方法들이 발달되었다.

여기서 간단히 觀點과 接近을 달리하는 理論을 소개하고 집단역동의 研究에 사용되는 研究方法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⁸⁾

1) 場理論(field theory)의 接近

場理論은 Lewin이 처음으로 이름지은 이론으로 집단은 成員 개인들의 단순한 集團體가 아니라 成員들이 형성하는 心理的 場이라 했다.

한 成員이 參與나 活動은 그 집단의 場의 全體構造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

38) 朴容憲(1975), 前揭書, pp. 185~190.

成員 個人 역시 그 집단의 場에 의하여 影響을 받게 된다. 집단에 참여한 成員 個人은 다른 成員과 相互依存的 關係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 成원의 활동은 서로 影響을 주고 받게 된다.³⁹⁾

2) 相互作用理論(interaction theory)의 接近

이 이론은 Homans와 Bales 등에 의하여 발달된 이론으로 집단을 成원들의 相互作用 體制라 解釋하는 入場이다. 집단의 共同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附加된 役割을 遂行하는 個人의 모든 행동은 다른 個人의 역할 수행 행동과 關係를 가지며 이루어진다고 보고 成원들이 상호작용하는 집단의 機能的 측면을 분석할 것을 강조하는 접근이다. Homans는 成원들의 活動과 그 相互作用을 분석함으로써 집단의 특징을 설명하려 했고, Bales는 共同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過程에 成원들이 당면하는 問題領域을 分析함으로써 成원들의 相互作用 過程을 설명하려 했다.⁴⁰⁾

3) Sociometry에 의한 접근

Sociometry는 Moreno에 의하여 창안된 것으로 이것은 하나의 理論이라기 보다는 研究方法이라 할 수 있다. 集團內的 相互作用이 구성원들간의 好, 不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아 觀察, 檢査, 面接등의 方法에 의해 자료를 蒐集하여 그 자료를 根據로 집단내의 心理構造를 分析하는 方法⁴¹⁾으로 이로 인해 집단의 特性 즉, 集단의 構造, 集단의 凝集性, 安全性, 外的 壓力에 대한 抵抗性, 士氣蒐集 등을 측정 評價할 수 있고 또, 成員個人의 特性 즉 性格, 慾求, 地位, 適應性, 人氣등을 측정·

39) 上揭書, p. 186.

40) 上揭書, p. 189.

41) 朴乃會(1990), 前揭書, p. 229.

평가할 수 있게 한다.

4) 精神分析學的 接近(psychoanalytic theory)

개인의 心理的 動機를 분석하려는 精神分析學의 理論을 集團活動의 研究와 이해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集團療法의 效果가 인정되자 집단의 機能이 개인의 動機와 行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모으게 되었고 Freud가 발달시킨 개인의 心理的 動機에 미치는 집단의 영향을 분석한 이론을 밑바탕으로 하는 集團力動의 研究接近이 이루어졌다.⁴²⁾

5) Group dynamics의 研究方法

(1) 實踐研究(action research)

항상 변화하고 움직이는 집단활동을 이해하고 집단이 當面한 問題의 解決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는 從來에 사용해 온 研究方法 즉 集團構造와 機能의 分析, 어떤 一般的인 原理의 究明, 普遍的인 法則에 대한 理論的 分析的 혹은 科學的 說明등의 方法을 活用할 수 없음을 Lewin은 느꼈다. 이 연구활동은 바로 문제가 생기는 實際 活動속에 들어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고 움직이는 事態를 把握할 수 있는 方法을 活用하는 研究로 長點은 많은 要因에 의하여 변화하고 動的인 狀態에 있는 집단활동을 보다 정확히 觀察하고 當面한 問題를 발견하는데 있다. 또한 變化過程을 이해할 수 있고, 實際 問題 解決에 직접 도울 수 있는 資料와 情報를 提供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수 있다.⁴³⁾

42) 上揭書, p.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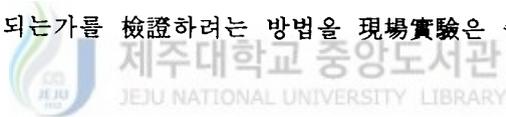
43) 朴容憲(1975), 前揭書, p. 194.

(2) 現場研究(field study)

集團活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주의하며 관찰하고 많은 의의있는 事實을 發見하려는 것이다. 研究者에 따라 또한 研究對象인 集團과 研究目的에 따라 觀察法이나 節次·資料分析등에 다양한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事態가 진행되는 現場에서 연구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은 미리 豫期하지 않았던 문제까지 발견함으로써 풍부한 情報와 資料를 얻을 수 있는 長點이 있다.

(3) 現場實驗(field experiments)

주로 集團活動에 관한 特定한 假說을 檢證하기 위해 쓰여지는 한 방법을 現場實驗이라 한다. 특정한 문제에 대한 假說을 檢證하기 위해서는 집단활동에 작용하는 여러 變因을 統制할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집단활동에 어떠한 새로운 變因을 投入하거나 혹은 한 變因을 除去했을 때 집단활동의 변화를 발견하려는 것이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집단활동에 주어진 變因만을 操作하여 그 結果 어떠한 변화에 일어나게 되는가를 檢證하려는 방법을 現場實驗은 중요시 한다.⁴⁴⁾



44) 上掲書, pp. 195~196.

III. 研究方法

1. 對象

本 研究의 對象은 濟州市內에 所在하고 있는 노형국민학교 5학년 男子 41명, 女子 32명, 6학년 男子 64명, 女子 58명, 計 195명을 檢査의 對象으로 하였다.

2. 測定道具

本 研究에서 使用한 測定道具는 다음과 같다.

1) 오오모도 시게루(大件茂)의 人物畫 檢査(Draw-A-person)⁴⁵⁾

- (1) 21cm×28cm의 크기로 된 흰색 도화지 1매
- (2) 지우개
- (3) 연 필



2) 標準化 性格診斷 檢査(國民學校-高學年用)⁴⁶⁾

3. 實施節次

1) 人物畫 檢査

人物畫 檢査는 對象 學級別로 오전 시간을 이용하여 같은 날 擔任과 研究者의

45) 金好恩(1984), 前掲書, pp. 217~315

46) 李相魯 외 2人(1989), 「標準化 性格 診斷 檢査」 中央適性 出版社

참석하에 실시했다. 검사전에 漫畫나 抽象的인 그림은 그리지 않도록 지시를 하고 몸전체를 그리라고 설명해 주는 이외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너무 분명히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그저 “네 좋도록” 또는 “네 마음대로 그려라”라고만 대답했다. 만일 자기는 그림을 잘못 그린다고 주저하는 어린이가 있을때는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전혀 相關이 없고, 成績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앞장에 여자를 다 그렸으면 뒷장에는 남자를, 앞장에 남자를 그렸으면 뒷장에는 여자를 그리도록 적절한 시간에 다시 한번 지시했다.

2) 標準化 性格 檢査

人物畫 檢査를 실시한 날에 먼저 실시했다. 역시 대상학급의 담임과 연구자의 참여하에 실시했다. 검사지를 나누어 주기 전에 이 검사의 目的과 內容을 간단 明瞭하게 설명해 주므로써 受檢態勢를 造成시키고 특히 能力이나 個人의 價値를 평가하는 검사가 아님을 이해시켜 率直하고 誠實하게 受檢토록 했다.

4. 分析內容



1) 人物畫 檢査

(1) 人物畫 檢査의 問題指標 頻度 分析

本 研究의 인물화 검사에는 17개 部位로 나누어졌으며 더 細分化시키면 137개의 分析規準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인물화에 이 분석기준에 해당되는 표현마다 개별적으로 표시하여 점수화시키고 남자상과 여자상에서 나온 총 점수가 이 인물화의 문제지표가 되는 것이다. 문제 지표가 많을수록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상징 부호별 出現頻度 分析

137개의 분석규준 각각에는 해당되는 상징부호가 정해져 있다. 137개의 분석규준에 등장한 상징부호들의 출현수와 그 의미는 表2와 表3과 같다.

表2 分析規準에 등장한 상징부호의 출현수

상징부호	S	M	SCH	PS	C	F	N	X	Y	B	계
출현 수	27	20	26	19	13	20	6	2	2	2	137

表3 상징부호와 그 의미

S	자아 발동이 강대, 남성적, 적극적, 낙천적, 자기 주장적
M	자아 발동의 약소, 여성적, 소극적, 비판적, 의존적
C	정신갈등, 정신적 곤란, 콤플렉스
F	욕구좌절, 초조, 친화회피, 무력감
Sch	일반적으로 정신병적, 분열증적, 우울병적, 편집적, 망상적
N	일반적으로 신경증적, 노이로제적 경향
Ps	조숙, 복잡한 성적 흥미
B	정신 미발달
X	정신적 장애
Y	신체적 장애

人物畫의 상징부호별 의미는 表3과 같다.

(3) 分析規準別 出現頻度 分析

2) 標準化 性格 検査

本 検査의 診斷尺度에는 技術尺度와 妥當性 尺度, 臨床尺度로 되어 있는데 척도 별 문항수는 表4와 같다.

表4 標準化 性格検査의 尺度別 問項數

診斷尺度	性 格 要 因	問項數
技術尺度	安定性(EST-Emotional stability)	30
	活動性(ACT-general activity)	30
	社會性(SOC-Sociability)	30
	男向性(MAS-Masculinity)	30
	責任性(RES-Responsibility)	30
	思慮性(REF-Reflectiveness)	30
	優越性(SUP-Superiority)	30
臨床尺度	우울경향(D-Depression)	15
	不安傾向(A-Anxiety)	
妥當性 尺度 (VAL-Validity)		15

본 성격검사의 분석에 있어서 먼저 妥當性 尺度 문항을 채점해서 素點 및 百分位點數가 높을수록 검사 결과의 妥當성과 信賴性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백분위 점수로 75이상이면 재검사를 실시하든지 무효화 시킬 수 있다.

타당성 척도 문항 채점 후 7개의 기술 척도와 2개의 임상척도에서 각각 소점을 구한 후 規準表에서 素點에 해당하는 百分位點數를 찾았다. 여기에서 백분위 점수로 25이하이면 그러한 性格特性 또는 傾向이 그만큼 낮은 편이고 25~75 사이에 있으면 正常範圍內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75 이상이면 높은 정도에 該當된다고

해석하면 된다. 백분위 점수가 높을수록 그만큼 각 성격 특성의 傾向 및 程度가 相對的으로 높고 強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인데 집단에 나타난 성격요인별 점수분포, 평균점수, 편차,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3) 人物畫 檢査와 標準化 性格 檢査의 相關關係 分析

인물화 검사의 X, Y를 제외한 8가지 S. M. C. F. PS. SCH. N. B의 상징부호와 표준화 성격검사 9개의 성격 특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5. 資料 처리

1) 인물화 검사에서는 問題指標 點數別, 상징부호별, 분석규준별 평균 및 편차를 구했다.

2) 표준화 성격검사에서는 성격요인별 백분위 점수에 대한 평균 및 편차를 구했고 성격요인별 상관계수를 구했다.

3) 인물화 검사와 표준화 성격 검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인물화 검사의 상징부호와 표준화 성격검사의 성격요인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4) 이 研究에서 適用된 統計 program은 C : ₩SP-SHEET ₩ COPLOT Program에 의하여 처리하였다.

IV. 結果 및 解釋

本 研究의 序論에서 提示한 研究問題에 따른 評價 結果를 解釋하고자 한다.

1. 標準化 性格 檢査

1) 妥當性 尺度

本 檢査에 있어서 妥當性 尺度는 受檢者의 受檢態度를 포착하려는 것으로 수검자가 그 문항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얼마나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경험이나 情意的 狀態를 나타내었는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점수에 비추어 檢査結果의 타당성, 신뢰성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本 檢査의 타당성 척도는 表5와 같다.

〈表 5〉 妥當性 尺度에 대한 학년 및 男女別 점수

학 年	5				6				합 계					
	남(N=41)		여(N=32)		남(N=64)		여(N=58)		남(N=105)		여(N=90)		계(N=195)	
M,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VAL(타당성)	3.20	23.21	26.60	23.07	28.23	23.49	26.93	21.05	29.00	23.29	26.62	21.66	27.90	22.53

타당성 척도에서는 百分位點數가 75 이상이면 그 兒童의 檢査結果는 순수한 性格特性과 傾向의 反映이라 볼 수 없다. 無效化하거나 再實施를 해야 한다.⁴⁷⁾ 本 檢査는 원래 5·6학년 218명을 對象으로 실시했는데, 이중 10.6%에 해당하는 어린이 23명은 타당성 척도에서 백분위 점수 75가 넘어 結果의 妥當성과 信賴性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除外시켰다.

47) 李相魯 외 2인(1989), 前掲書, p. 16.

표 5를 보면 학년별, 남녀별, 별 차이 없이 고른 분포임을 알 수 있다.

이尺度에서는 百分位 點數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검사 結果의 妥當性和 信賴性이 낮고 의심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척도 점수가 낮을수록 검사결과는 妥當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된다.⁴⁸⁾

본 검사의 전체 평균이 27.9이란 점수는 매우 높은 妥當性和 信賴性을 나타내는 檢査 結果임을 보여주고 있다.

2) 性格要因別 點數 分布 및 平均點數와 標準偏差

性格要因別 點數分布와 平均成績은 다음 表6과 表7과 같다.

表6 性格要因別 點數 分布

성격 요인	학년 성별 점수 분포	5		6		계		
		남(N=41)	여(N=32)	남(N=64)	여(N=58)	남(N=105)	여(N=90)	계(N=195)
EST	90~100	3	1	4	2	7	3	10
	80~89	8	3	5	2	13	5	18
	70~79	4	2	5	11	9	13	22
	60~69	1	3	6	6	7	9	16
	50~59	3	4	4	5	7	9	16
	40~49	5	2	6	2	11	4	15
	30~39	3	4	10	6	13	10	23
	20~29	3	7	4	10	7	17	24
	10~19	7	5	16	10	23	15	38
	0~9	4	2	4	4	8	6	14
ACT	90~100	4	5	5	9	9	14	23
	80~89	3	3	2	9	5	12	17
	70~79	5	1	3	2	8	3	11
	60~69	3	3	2	6	5	9	14
	50~59	6	3	3	7	9	10	19
	40~49	6	4	6	4	12	8	20
	30~39	4	5	6	4	10	9	19
	20~29	3	1	12	4	15	5	20
	10~19	3	3	13	10	16	13	29
	0~9	4	4	12	3	16	7	23

48) 上掲書, p. 17.

성격 요인	학년 성별 점수 분포	5		6		계		
		남(N=41)	여(N=32)	남(N=64)	여(N=58)	남(N=105)	여(N=90)	계(N=195)
SOC	90~100	5	4	5	13	10	17	27
	80~89	3	4	6	10	9	14	23
	70~79	5	3	11	6	16	9	25
	60~69	3	4	4	2	7	6	13
	50~59	4	5	6	6	10	11	21
	40~49	4	4	5	7	9	11	20
	30~39	5	3	11	4	16	7	23
	20~29	5	4	6	3	11	7	18
	10~19	3		7	6	10	6	16
	0~9	4	1	3	1	7	2	9
MAS	90~100	1		1	6	2	6	8
	80~89	3	5	8	8	11	13	24
	70~79	4	4	4	4	8	8	16
	60~69	6	2	7	6	13	8	21
	50~59	1	2	6	8	7	10	17
	40~49	7	6	13	6	20	12	32
	30~39	7		6		13		13
	20~29	4	3	6	6	10	9	19
	10~19	3	4	6	8	9	12	21
	0~9	2	6	7	6	9	12	21
RES	90~100	1		1	2	2	2	4
	80~89	4	2	2	4	6	6	12
	70~79	3	2	1	3	4	5	9
	60~69	3	2	7	10	10	4	14
	50~59	3	3	4	9	7	12	19
RES	40~49	2	6	3	6	5	12	17
	30~39	6	3	11	7	17	10	27
	20~29	4	4	6	5	10	9	19
	10~19	10	5	16	12	26	17	43
	0~9	5	5	13	8	18	13	31
REF	90~100	5	2	4	9	9	11	20
	80~89	5	5	5	8	10	13	23
	70~79	2	3	4	3	6	6	12
	60~69	4	3	3	3	7	6	13
	50~59	6	5	5	8	11	13	24
	40~49	2		3		5		5
	30~39	1	4	4	10	5	14	19
	20~29	6	1	14	6	20	7	27
	10~19	4	3	3	5	7	8	15
0~9	6	6	19	6	25	12	37	

성격 요인	학년 성별 점수 분포	5		6		계		계(N=195)
		남(N=41)	여(N=32)	남(N=64)	여(N=58)	남(N=105)	여(N=90)	
SUP	90~100	7	5	10	9	17	14	31
	80~89	9	3	6	7	15	10	25
	70~79	5	3	4	3	9	6	15
	60~69	1	2	8	10	9	12	21
	50~59	3	3	5	5	8	8	16
	40~49	3	1	8	4	11	5	16
	30~39	4	5	4	4	8	9	17
	20~29	3	1	8	2	11	3	14
	10~19	2	2	4	6	6	8	14
	0~9	4	7	6	8	10	15	25
D	90~100	5	4	5	4	10	8	18
	80~89	5	3	14	6	19	9	28
	70~79	3	3	10	6	13	9	22
	60~69	3	4	6	5	9	9	18
	50~59	3	4	5		8	4	12
	40~49	2	3	2	8	4	11	15
	30~39	2	2	5	10	7	12	19
	20~29	9	4	6	8	15	12	27
	10~19	5	3	7	7	12	10	22
	0~9	4	2	4	4	8	6	14
A	90~100	2	2	9	1	11	3	14
	80~89	7	4	11	8	18	12	30
	70~79	3	3	3	7	6	10	16
	60~69	3	3	5	5	8	8	16
	50~59	6	5	6	6	12	11	23
	40~49	2	1	2	3	4	4	8
	30~39	5	3	12	6	17	9	26
	20~29	4	6	5	6	9	12	21
	10~19	3	3	5	6	8	9	17
0~9	6	2	6	10	12	12	24	

表6에 의하면 5학년 남자는 EST(안정성)의 경우 點數分布가 고루 分散되어 있는 반면 여자인 경우 比較的 下位 점수에로 치중이 되어 있고 ACT(활동성)인 경우 여자 어린이가 약간 中位 點數에 集中이 되었으나 남녀 모두 比較적 高른 點數 分布를 나타내고 있다.

SOC(社會性)인 경우 남자 成績은 고르나 여자인 경우 하위 점수 분포에 해당된 어린이는 1명 밖에 없고 모두 中上位 點數에 분포되어 있어 社會성은 남녀 모두 좋

으나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성이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MAS(男向性)의 경우 남자는 中位點數에 集中되나 여자는 兩極쪽으로 點數가 分布되어 있다.

RES(責任性)의 경우 남녀 모두 下位 點數에 分布되어 있고 REF(사려성)인 경우는 남자가 兩極쪽으로 점수가 分布된 반면 여자는 고른 점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SUP(우월성)인 경우 남자는 상위 점수 집중이 되어 있고 여자는 고른 분포를 이루고 있다.

結論적으로 5학년 남자 어린이는 여자 어린이에 비해 EST, SUP 要因에 集中되어 安定性 優越性 傾向이 높다고 判斷되며 REF인 경우는 兩極쪽으로 集中이 되어 思慮性에 있어서는 一貫되지 못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여자인 경우는 SOC(社會性1)에 있어서 중상위 점수 분포에 치중이 되어 남자에 비해 사회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다.

6학년인 경우 ACT(활동성)와 SOC(사회성)인 경우 남자는 하위 점수에 집중이 된 반면 여자는 점수로 분포됨을 알 수 있다. EST(안정성)인 경우는 남녀 모두 하위 점수에 치중이 되어 있다.

MAS(男向性)인 경우 남자는 중위점수에 분포되어 있고 여자는 고른 분포를 이루고 있고 남자에 비해 상위점수에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RES(責任性)인 경우 남녀 모두 낮은 점수로 집중이 되어 있다.

REF(思慮性)에 있어서는 남자가 하위점수로의 분포이나 여자는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SUP(優越性)에 있어서는 남자는 고르나, 여자는 상위점수에 집중이 되고 있다.

結論적으로 6학년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ACT, SOC, REF, SUP에서 뚜렷하게 높은 點數 分布를 나타내고 있어, 여자가 남자에 비해 여성적인 세심함과 社交性이 높고 活動的이며 自信感이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表 7〉 性格要因別 平均點數와 標準偏差

성격요인 평균 성별 편차	학 년		5				6				합 계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계	
	M	SD														
est	48.20	30.88	41.44	25.24	42.98	28.08	43.78	27.05	45.02	29.17	42.94	26.30	44.06	27.83		
acto	48.76	29.01	51.13	31.06	32.41	28.35	55.55	30.62	38.79	29.58	53.98	30.68	45.8	30.95		
soc	49.80	30.33	54.94	26.80	49.73	28.09	60.24	29.59	49.76	28.84	58.36	28.59	53.73	28.97		
MAS	42.20	26.93	43.72	29.33	43.41	26.66	51.16	30.29	42.93	26.64	48.51	30.00	45.51	28.30		
RES	38.05	27.36	36.00	25.14	29.52	23.83	38.17	26.37	32.85	25.48	37.4	25.82	34.95	25.67		
REF	48.17	30.95	48.47	31.40	35.77	30.51	51.17	31.71	40.61	31.13	50.21	32.00	45.04	31.63		
SUP	58.78	31.28	48.31	33.17	51.31	30.14	51.52	31.71	54.23	30.66	50.38	32.09	52.45	31.31		
VAL	30.20	23.21	26.06	23.07	28.23	23.49	26.93	21.05	29	23.29	26.62	21.67	27.90	22.53		
d	46.37	31.05	52.63	28.50	56.58	28.69	48.62	29.89	52.59	29.90	50.04	29.30	51.41	29.58		
A	45.83	30.57	49.25	29.28	52.39	31.12	45.66	29.28	49.83	30.93	46.93	29.17	48.49	30.08		

表7에 의하면, 5학년에서 있어서 ACT(활동성), SOC(사회성) 등은 여자 어린이가 남자 어린이에 비해 높은 점수가 나왔고, EST(안정성), RES(책임성), SUP(우월성) 등은 오히려 남자 어린이가 높게 나왔다. 특히 SUP(우월성)에 있어서는 남자가 58.78, 여자가 48.31로 10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남자 어린이들은 조용하면서도 침착하며 든든한 자신감을 가지며 자기표현의 행동 성향이 강하다 볼 수 있다. 반면 여자 어린이들은 부지런하고 친절하며 사교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6학년인 경우는 精神病理的 傾向性을 診斷하는 憂鬱傾向 不安傾向을 제외한 모든 성격요인에서 여자 어린이가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남자 어린이들이 걱정, 두려움등의 不安心理와 더불어 自己無力感, 自己否定

的인 경향이 있어 社會的 접촉의 忌避, 내지 非活動的인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자 어린이들은 바람직한 집단의 특성으로 情緒가 안정되고 自信感과 意志力이 강하며 活動性이 강하고 사교적이라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여자 어린이는 行動性, 社會性, 男向性, 責任性, 思慮性이 높고 남자 어린이는 優越性, 安定性이 여자에 비해 높다 할 수 있다.

이는 남자 어린이가 조용하고 침착한 면이 있는 반면 자기 과시적인 優越感이 있어 비슷한 감정의 성향으로 一貫하지는 못하고 있다.

여자 어린이들은 비교적 바람직한 특성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明朗하고 活動的인 면서도 진지하고 信賴로운 行動的 特性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여자 어린이의 行動性, 社會性, 男向性的 關聯은 주목할만하다.

백분위 점수가 75 이상이면 그러한 성격의 특성이 매우 높고 25이상 75미만이면, 正常範圍內에 있다고 볼 수 있어 각 성격 요인별 평균 점수가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正常範圍內에 속해 평범한 집단이라 평가할 수 있다.



3) 성격요인 상호간의 상관관계

標準化 性格檢査의 實施結果 性格要因間의 相關關係는 表7, 表8, 表9와 같다.

(1) 남자어린이이 성격요인간의 상관관계

〈表8〉 남자어린이의 性格要因間의 相關關係

성격 요인	EST	ACT	SOC	MAS	RES	REF	SUP	D	A
EST	1.00	-0.18	0.36***	0.26	0.48***	0.12	0.53***	-0.59***	-0.74***
ACT	-0.18	1.00	0.22*	0.06	0.18	0.29**	0.06	-0.14	-0.05
SOC	0.36***	0.22*	1.00	0.17	0.46***	0.24*	0.44***	-0.45***	-0.53***
MAS	0.26*	0.06	0.17	1.00	0.08	0.01	0.24*	-0.40***	-0.23*
RES	0.48***	0.18	0.46***	0.08	1.00	0.33***	0.46***	0.34***	-0.41***
REF	0.12	0.29**	0.24*	0.01	0.33***	1.00	0.04	-0.08	-0.04
SUP	0.53***	0.06	0.44***	0.24*	0.46***	0.04	1.00***	-0.73***	-0.60***
D	-0.59***	-0.14	-0.45***	-0.40***	-0.34***	-0.01	-0.73***	1.00	0.71***
A	-0.74***	-0.05	-0.53***	-0.23*	-0.41***	-0.04	-0.60***	0.71***	1.00

* P<0.05 ** P<0.01 *** P<0.001

表8은 남자 어린이의 性格要因別 相關關係를 나타낸 것이다.

表8에 의하면 EST(안정성)는 SOC(사회성), RES(책임성) SUP(우월성)와 상관 계수 $r=.26\sim.53$ 으로 $P<0.001$ 수준에서 매우 높은 相關關係를 보여주고 있으며,

SOC(사회성)는 RES(책임성), EST(안정성), SUP(우월성)와 상관계수 $r=.36\sim.46$ 으로 매우 높은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다.

RES(책임성)는 EST(안정성), REF(사려성), SUP(우월성)와 $r=.33\sim.48$ 로 높은 相關을 나타내고 있고, EST, SOC, RES, SUP는 모두 D(우울경향), A(불안경향)와

$r = -.34 \sim -.73$ 으로 매우 높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2) 여자 어린이의 성격요인간의 상관관계

〈表9〉 여자어린이의 性格要因間의 相關關係

성격 요인	EST	ACT	SOC	MAS	RES	REF	SUD	D	A
EST	1.00	-0.10	0.30**	0.23*	0.34**	-0.04	0.55***	-0.61***	-0.71***
ACT	-0.10	1.00	0.20	0.02	0.16	0.33**	0.10	-0.25*	-0.03
SOC	0.30**	0.20	1.00	0.09	0.25*	0.13	0.50***	-0.42***	-0.47***
MAS	0.23*	0.02	0.09	1.00	0.02	-0.18	0.21	0.09	-0.38***
RES	0.34**	0.16	0.25**	0.02	1.00	0.21*	0.28**	-0.30**	-0.31**
REF	-0.04	0.33**	0.13	0.18	0.21*	1.00	-0.02	0.08	0.06
SUP	0.55***	0.10	0.50***	0.21	0.28**	-0.02	1.00	-0.77***	-0.75***
D	-0.61***	-0.25*	-0.42***	0.09	-0.30**	0.08	-0.77***	1.00	0.83***
A	-0.71***	-0.13	-0.47***	-0.38***	-0.31**	0.06	-0.75***	0.83***	1.00

* P<0.05 ** P<0.01 *** P<0.001

여자 어린이의 性格要因別 相關係數는 表9과 같다.

表9에 의하면 SUP(우월성)는 EST(안정성)와 SOC(사회성)와 상관계수 $r = .50 \sim .55$ 로 $P < 0.001$ 수준에서 매우 높은 相關關係를 나타내고 있고 EST, SOC, SUP는 D(우울경향)와 A(불안경향)하고 모든 $r = -.42 \sim -.77$ 로 매우 높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남녀 모두가 D와 A는 상관계수 $r = .71 \sim .83$ 으로 매우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특이한 것은 남자 어린이에 있어서는 MAS(남향성)와 D(우울경향)가 $r = -.40$ 으로 높은 역상관을 나타내고 있고 여자 어린이에 있어서는

MAS(남향성)와 A(불안경향)가 상관계수 $r = -.38$ 로 높은 역상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남자에 있어서는 남향성이 강할수록 우울경향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고 여자에 있어서는 남향성이 강할수록 불안경향이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 책임성에 있어서 남자는 우울경향과 $r = .34$ 로 높은 정상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자에 있어서는 $r = -.32$ 로 높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모든 성격요인별 상관계수를 분석해 보니 남녀 비슷한 경향의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요인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 남녀별 결과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

(3) 全體 어린이의 性格要因間의 相關關係

<表10> 전체 어린이의 性格要因間의 相關關係

성격 요인	EST	ACT	SOC	MAS	RES	REF	SUD	D	A
EST	1.00	-0.15*	0.32***	0.21**	0.41***	0.04	0.54***	-0.60***	-0.73***
ACT	-0.15*	1.00	0.24***	0.06	0.19**	0.33***	0.06	-0.19**	-0.09
SOC	0.32***	0.24***	1.00	0.14*	0.37***	0.21**	0.45***	0.14	-0.44**
MAS	0.21***	0.06	0.14*	1.00	0.06	-0.07	0.21	-0.39***	-0.29***
RES	0.41***	0.19**	0.37***	0.06	1.00	0.28***	0.36***	-0.32***	-0.37***
REF	0.04	0.33***	0.21**	-0.07	0.28***	1.00	-0.00	0.02	-0.00
SUP	0.54***	0.06	0.45***	0.21**	0.36***	-0.00	1.00	-0.74***	0.66***
D	-0.60***	-0.19**	0.14	-0.39***	-0.32***	0.02	-0.74***	1.00	0.76***
A	-0.73***	-0.09	-0.44***	-0.29***	-0.37***	-0.00	-0.66***	0.76***	1.00

* P<0.05 ** P<0.01 *** P<0.001

表10는全體 어린이의 性格要因別 相關關係를 나타낸 것으로 EST(안정성)는 SOC(사회성), RES(책임성), SUP(우월성)와 상관계수 $r=.32\sim.54$ 로서 $P<0.001$ 수준에서 높은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어, 본 집단의 어린이들은 안정성이 높을수록 사회성, 책임감, 우월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ACT(활동성)는 SOC, REF와 상관계수 $r=.24\sim.33$,

SOC(사회성)는 EST, ACT, RES, SUP와 相關係數 $R=.28\sim.41$,

REF(사려성)는 ACT, RES와 $r=.28\sim.33$,

SUP(우월성)는 EST, SOC, RES와 $r=.36\sim.54$ 로 $P<0.001$ 수준에서 매우 높은 相關關係를 나타내고 있고,

EST, MAS, RES, SUP는 D와 A하고 $r=-.29\sim-.74$ 까지 매우 높은 역상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안정성하고 우월성은 정신병리적인 우울경향과 불안경향과는 매우 높은 역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역시 D와 A는 $r=.76$ 으로 서로 높은 關聯性을 보여주고 있다.

2. 人物畫 檢査



1) 問題 指標

학년 남녀별 문제지표 빈도 분포는 표11과 같다.

表11 學年別 問題指標 頻度 分布

문제 지표	학년 성별	5			6			합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6~10		3	3	6	5	8	13	8	11	19
11~15		12	14	26	26	27	53	38	41	79
16~20		21	11	32	27	21	48	48	32	80
21~25		4	4	8	6	2	8	11	6	17
26~30		1	1	2						
31~35										
Min		9	10	9	7	8	7	7	8	7
MAX		28	23	28	24	24	24	28	24	28
N		41	32	73	64	58	122	105	90	195
X		16.51	15.69	16.1	15.66	14.43	15.05	15.99	14.88	15.48

表11은 남자상의 問題指標와 여자상의 問題指標를 합한 總合된 問題指標의 分布로서 집단내에서 어떤 모양으로 個人差가 存在하는지를 나타낸 것으로서 問題指標가 높을수록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5학년 어린이들은 問題指標가 9에서 28까지 6학년 어린이들은 7에서 24까지 나타났다. 문제가 될 수 있는 特徵의 수가 9, 7과 같이 아주 작은 수도 있지만 24, 28과 같은 多數에 이르는 어린이들이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학년인 경우 문제지표 평균이 16.1, 6학년인 경우 15.05로 6학년보다 5학년의 문제지표가 높게 나왔다.

日本의 경우 13세인 남자아이의 平均的인 問題指標가 13~14.4, 여자아이가 12~13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本 研究에서는 12세인 5학년 남자가 16.51, 여자가 15.69, 13세인 6학년인 경우 남자가 15.66, 여자가 14.43으로 일본의 경우 보다 좀 높은 問題指標가 나왔다. 이는 社會 文化的 環境의 差異로 인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고 問題性이 될만한 점수는 아니라 할 수 있다.

2) 상징부호에 의한 해석

表12 상징부호별 출현수 및 평균

상징 부호	평균	5		6		합 계	
		남	여	남	여	남	여
B	N	10	3	10	15	20	18
	X	(0.24)	(0.09)	(0.16)	(0.26)	(0.19)	(0.20)
S	N	234	222	337	200	571	422
	X	(5.71)	(6.94)	(5.27)	(3.45)	(5.44)	(4.69)
M	N	156	88	211	156	367	244
	X	(3.80)	(2.75)	(3.30)	(2.69)	(3.50)	(2.71)
SCH	N	33	37	67	58	100	95
	X	(0.80)	(1.16)	(1.05)	(1.00)	(0.95)	(1.06)
PS	N	30	45	51	42	81	87
	X	(0.73)	(1.41)	(0.80)	(0.72)	(0.77)	(0.97)
N	N	7	5	13	10	20	15
	X	(0.17)	(0.16)	(0.20)	(0.17)	(0.19)	(0.17)
C	N	100	61	147	71	247	132
	X	(2.44)	(1.91)	(2.30)	(0.122)	(2.35)	(1.47)
Y	N	1	1	3	4	4	5
	X	(0.02)	(0.03)	(0.05)	(0.07)	(0.04)	(0.06)
X	N
	X
F	N	99	78	158	97	257	175
	X	(2.41)	(2.44)	(2.47)	(1.67)	(2.45)	(1.94)

表12는 人物畫 檢査 結果를 象徵符號로 정리한 것인데 이것은 곧 집단의 力動性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5학년 남자의 경우 S가 5.7개 M이 3.8개, 여자의 경우는 S가 6.9개 M이 2.7개로 남자 어린이는 積極的이고 樂天的이고, 自我發動이 강한 반면 依存的이고 女性的이며 消極的인 면도 있어 兩極 현상을 나타내어 不安定 상태로 보인다. C가 2.44개 F가 2.41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여자 어린이는 기본적인 여성스러운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적극적이고 활달하며 자기 주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6학년인 경우 남자 어린이는 S가 5.3개 M이 3.3개이고 여자 어린이는 S가 3.5개 M이 2.7개로 남자 어린이의 경우 積極的이고 활달하면서도 의존적인 특징이 나타나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 초조해 보인다. 이에 C가 2.3, F가 2.5개 나온 것에 關聯하여 解釋할 수 있다. 여자어린이인 경우는 소극적이고 의존적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남자어린이들은 積極的이고 自我가 強大한 特性이 있는 반면 소극적이고 依存的인 특징이 있어 自我가 統合되지 않아 다소 不安定한 集團이라 할 수 있고 여자 어린이의 집단은 활달하면 안정감이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3) 分析規準에 의한 해석

表13은 분석규준별 출현빈도를 나타낸 것이고 表14은 表13에서 受檢者중 30% 이상 반응을 보인 항목만 따로 분류하여 놓은 것이다.

〈表13〉 分析規準別 出現頻度

분석 기준	5			6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	5	1	6	9	2	11	14	3	17
2									
3		4	4	2	6	8	2	10	12
4				1	1	2	1	1	2
5									
6	2		2	2	1	3	4	1	5
7				1		1	1		1
8									
9	17	23	40	31	45	76	48	68	116
10	19	4	23	33	14	47	52	18	70
11	10	1	11	6	3	9	16	4	20
12	1	1	2	2	1	3	3	2	5
13	1	2	3	3	1	4	4	3	7
14	3	3	6	6	3	9	9	6	15
15	1		1	4	1	5	5	1	6
16	11	4	15	9	8	17	20	12	32
17		2	2		1	1		3	3
18		1	1					1	1
19									
20	6	4	10	4	8	12	10	12	22
21	2		2	6	1	7	8	1	9
22		1	1					1	1
23								1	1
24	1	3	4	9	5	14	10	8	18
25									
26	3	3	6	7	1	8	10	4	14
27									
28	3	8	11	1	10	11	4	18	22
29	4	3	7	2	8	10	6	11	17
30									
31	19	27	46	34	23	57	53	50	103
32	1		1				1		1
33				1			1		1
34	4	13	17	11	10	21	15	23	38
35				6	2	8	6	2	8
36	13	8	21	13	6	19	26	14	40
37	8	6	14	10	1	11	18	7	25
38	4	10	14	6	13	19	10	23	33
39	12	13	25	10	5	15	22	18	40
40	2	4	6	8	12	20	10	16	26

분석 기준	환년 성별	5			6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41			4	4		1	1		5	5
42										
43					2	2	4	2	2	4
44					9	1	10	9	1	10
45	1		1	3		3	4		4	4
46	1		1	6	5	11	7	5	12	12
47	4	6	10	5	13	18	9	19	28	28
48	1	7	8	20	30	50	21	37	58	58
49	5	1	6	6	7	13	11	8	19	19
50	36	32	68	47	38	85	83	70	153	153
51	29	7	36	18	10	28	47	17	64	64
52	1	1	2	1		1	2	1	3	3
53	2	4	6	3	7	10	5	11	16	16
54	2	4	6	9	4	13	11	8	19	19
55					1			1	1	1
56		1	1					1	1	1
57	28	23	51	51	30	82	79	53	133	133
58		2	2	3		3	3	2	5	5
59	12		12	14	2	16	26	2	28	28
60				2		2	2		2	2
61	1	4	5	3	2	5	4	6	10	10
62	20	8	28	26	19	45	46	27	73	73
63	3	7	10	11	17	28	14	24	38	38
64	5	2	7	9	3	12	14	5	19	19
65				4	3	7	4	3	7	7
66	7	6	13	7	8	15	14	14	28	28
67	5	4	9	3	6	9	8	10	18	18
68	2		2	4	1	5	6	1	7	7
69										
70				4	1	5	4	1	5	5
71	1		1					1	1	1
72	9	11	20	8	6	14	17	17	34	34
73	38	18	56	56	56	112	94	74	168	168
74	9	8	17	12	24	36	21	32	53	53
75	6		6	21	12	33	27	12	39	39
76	4	1	5	6	13	19	10	14	24	24
77	6	1	7	10	5	15	16	6	22	22
78	23	11	34	30	12	42	53	23	76	76
79	6	7	13	17	9	26	23	16	39	39
80										

분석 기준	학년 성별	5			6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81										
82				3	1	4	3	1	4	
83				3	1	4	3	1	4	
84		15	3	18	19	11	30	34	48	
85					2	2		2	2	
86		5		5	8	2	13	2	15	
87		7		7	4	1	5	11	1	12
88		4		4	1	2	3	5	2	7
89		5	8	13	7	15	22	12	23	35
90					1		1	1		1
91		25		25	2		2	27		27
92		27	37	64	41	62	103	68	99	167
93		1		1	12		12	13		13
94		7	3	10	7	3	10	14	6	20
95		1		1	3	2	5	4	2	6
96		1	14	15	2	14	16	3	28	31
97			1	1					1	1
98		1		1				1		1
99		1	2	3		3	3	1	5	6
100		1	6	7	3	3	6	4	9	13
101										
102		1		1	2		2	3		3
103										
104			1	1					1	1
105		5	3	8	3	11	14	8	14	22
106										
107						1	1		1	1
108		3		3		2	2	2	2	5
109		6	1	7	5	3	8	11	4	15
110										
111						1	1		1	1
112		13	1	14	9	5	14	22	6	28
113		10	11	21	19	31	50	29	42	71
114		60	37	97	96	55	151	156	92	248
115		1		1	3	1	4	4	1	5
116		36	17	53	35	18	53	71	35	106
117						1	1		1	1
118		1	1	2		1	1	1	2	3
119		1	3	4	4	5	9	5	8	13
120					1		1	1		1

분석 기준	학년 성별	5			6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21					1		1	1		1
122			4	4	2	8	10	2	12	14
123			2	2		4	4		6	6
124		1		1			1			1
125		1		1				1		1
126										
127			2	2	1	2	3	1	4	5
128			5	5		2	2		7	7
129					2	2	4	2	2	4
130										
131										
132										
133		3	1	4	17	5	22	29	6	26
134		2	3	5	13	6	19	15	9	24
135										
136					2		2	2		2
137										
138										
139										
140										



表14 受檢者 30% 이상 채점된 分析規準 ()은 %

성별	상징 부호	분석 기준	채점된 수 (%)	순위	의 미
남 (N=105)	S	50	83(39.5)	3	공격적, 절대적, 자기주장이 강함
	C	57	79(37.6)	4	성적 갈등, 성적 미숙
	M	73	94(44.8)	2	의존적, 소극적, 여성적
	F	92	68(32.4)	6	손의 활동에 대한 불안
	S	114	156(74.3)	1	안정애의 열망
	C	116	71(33.8)	5	감정의 갈등이 심함
여 (N=90)	S	9	68(37.8)	5	자아강대
	S	50	70(38.9)	4	공격적, 적대적, 자기주장의 강함
	M	73	74(41.1)	3	소극적, 의존적, 여성적
	F	92	99(55)	1	손의 활동에 대한 불안
	S	114	92(51)	2	안정애의 열망

表14에 따라 該當 分析規準別 意味를 보면, 남·녀 모두 고집이 세고 불안하여 安定애의 보상을 원하는 傾向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차이라 하면 남자 어린이쪽이 해당 항목이 1개 항목이 더 많고 채점된 수도 높아 不安傾向이 여자어린이보다 높다 할 수 있다.

3. 標準化 性格 檢査와 人物畫 檢査 結果의 비교

1) 비슷한 結果의 解釋

같은 集團에 대한 두 檢査의 結果가 비슷한 집단으로는 5학년 여자어린이 집단과 6학년 남자 어린이 집단이 나왔다.

5학년 여자 어린이의 경우 성격검사에서 ACT(활동성), SOC(사회성)가 다른 性格要因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어, 活動的이고 精力的인 特性으로 부지런하며 對人關係 社會關係에서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人物畫 檢査에서는 S가 6.9개, M이 2.7개로 M의 성향 보다는 S의 성향이 높아서 自我發動이 積極的이고 樂天的이라 解釋할 수 있어 外向的이고 積極的이며 樂天的인 비슷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6학년 남자인 경우는 성격검사에서 D(우울경향)와 A(불안경향)가 높으며 인물화 검사에서는 S가 5.3개 M이 3.3개로 서로 상반되는 특성이 별차이 없이 兩極하고 있어 자아가 통합되지 않아 불안정하다 볼수 있다. 다소 情緒가 安定되지 않고 不安하다는 점에서 비슷한 解釋을 내릴 수 있다.

2) 別個의 解釋

두 檢査의 結果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좀 다른 解釋이 나오기도 했다. 5학년 남자어린이 집단과 6학년 여자 어린이 집단이 그 경우이다.

5학년 남자의 경우 성격검사에 있어서 EST(안정성), RES(책임성), SUP(우월성)의 점수가 높아 조용하고 침착하며 인내심이 강하다.

특히 높은 優越感은 든든한 自信感으로 인한 誇示的 行動 性向이 짙다고 할 수 있다. 人物畫 檢査에 있어서는 S가 5.7개 M이 3.8개 C가 2.4개 F가 2.4개로 정서가 안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집단이라 할수 있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다.

6학년 여자의 경우 性格檢査에 있어서 EST(안정성), ACT(활동성), SOC(사회성), MAS(남향성), SUP(우월성)가 높아 아주 바람직한 集團의 特性으로 정서가 안정되고 자신감과 의지가 강하고 활동적이며 사교적이라 할 수 있는 반면 人物畫 檢査에서는 S가 3.5, M이 2.7로 S가 M에 비해 큰 특성을 지니지 못해 비교적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여성적 특성이라 해석할 수 있어 좀 다른 解釋을 할 수 있다.

4. 標準化 性格檢査와 人物畫 檢査의 相關關係

集團 力動을 診斷한 두 檢査의 結果를 가지고 두 檢査의 相關關係는 다음과 같다.

1) 남자 어린이 檢査結果의 相關關係

表15 남자 어린이 檢査結果에 대한 相關關係

상징부호 성격요인	B	S	M	SCH	PS	N	C	F
EST	0.10	0.14	0.03	0.03	-0.03	0.19	0.02	0.09
ACT	0.02	0.16	0.01	-0.02	-0.08	-0.14	-0.105	0.03
SOC	0.09	0.21*	-0.13	0.03	0.14	0.01	-0.27**	0.05
MAS	0.21*	0.05	-0.11	-0.04	0.13	0.09	-0.00	0.11
RES	0.04	0.24*	-0.03	-0.07	-0.02	0.10	-0.20	0.03
REF	0.18	0.11	-0.06	-0.11	0.03	0.04	0.03	0.09
SUP	-0.07	0.27**	0.06	0.09	-0.10	0.04	0.02	0.08
D	0.04	-0.09	-0.11	-0.00	0.03	0.01	-0.03	-0.15
A	-0.10	-0.17	-0.06	-0.02	-0.03	0.00	0.10	-0.08

*P<0.05 **P<0.01 ***P<0.001

表15에 의하면 남자 어린이인 경우 성격검사의 성격요인 중 SOC(사회성)와 인물화 검사의 S부호와 相關係數 $r=.21$ 로서 $P<0.05$ 수준에서 相關關係가 있고 C부호와는 $r=-.27$ 로서 $P<0.01$ 수준에서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MAS(남향성)와 B符號와는 相關係數 $r=.21$, RES(사려성)와 S符號와는 相關係數 $r=.24$ 로

서 $P < 0.05$ 수준에서 關聯性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SUP(우월성)와 S符號가 相關係數 $r = .27$ 로서 $P < 0.01$ 수준에서 높은 相關關係를 나타내고 있는데 상관계수로서 남자집단의 두드러진 특징은 사회성이 높을수록 정신적 갈등은 낮다고 볼 수 있고 우월성이 강할수록 적극적이고 남성적인 면이 강한 경향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

2) 女子 어린이 檢査結果의 相關關係

表16 여자 어린이 檢査結果에 대한 相關關係

상징부호 성격요인	B	S	M	SCH	PS	N	C	F
EST	0.04	-0.27**	0.15	-0.09	-0.05	0.11	-0.03	0.02
ACT	0.08	0.14	-0.24*	0.05	0.02	-0.07	0.05	0.04
SOC	0.09	0.09	-0.11	-0.01	0.12	0.06	-0.15	-0.04
MAS	-0.13	0.01	0.09	-0.08	-0.23*	-0.13	-0.05	0.04
RES	0.07	-0.06	-0.04	0.20*	-0.10	-0.00	-0.01	0.12
REF	0.10	0.05	0.02	0.14	0.01	-0.06	0.12	0.03
SUP	0.12	0.08	-0.13	0.12	0.18	-0.04	-0.05	0.09
D	0.15	-0.04	0.08	-0.05	-0.00	0.07	0.02	0.00
A	-0.02	0.04	0.05	-0.05	-0.02	0.09	0.04	0.00

* $P < 0.05$ ** $P < 0.01$ *** $P < 0.001$

表16에 의하면 여자 어린이인 경우 性格檢査의 性格要因 EST(안정성)와 인물화 검사의 S符號와 $r = -.27$ 로 $P < 0.01$ 수준에서 높은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고 ACT(활동성)와 M符號가 상관계수 $r = -.24$, MAS(남향성)와 PS符號가 상관계수 $r = -.23$, RES(책임성)와 SCH符號가 $r = .20$ 으로 $P < 0.05$ 수준에서 相關關係를 보여 주고

있다. 여자 어린이인 경우는 성격검사 안정성이 높을수록 적극적이고 낙천적이며 남성적인 상징부호 S의 점수값 낮다고 볼 수 있다.

3) 全體 檢査結果의 相關關係

男女를 合한 全體的인 相關關係는 表와 같다.

表17 전체 어린이의 檢査結果에 대한 相關關係

상징부호 성격요인	B	S	M	SCH	PS	N	C	F
EST	0.07	-0.05	0.09	-0.04	-0.04	-0.15*	0.00	0.06
ACT	0.06	0.12	-0.13	0.05	0.00	-0.10	-0.05	0.02
SOC	-0.09	0.14*	-0.13	0.03	0.11	0.03	-0.24***	0.07
MAS	-0.06	0.02	-0.02	-0.05	-0.06	-0.02	-0.04	0.07
RES	0.06	0.08	-0.04	0.09	-0.05	0.05	-0.11	0.06
REF	0.10	0.06	-0.04	0.04	0.04	-0.00	0.04	-0.04
SUP	0.03	0.18*	-0.02	0.10	0.05	0.00	0.09	0.02
D	0.04	-0.06	-0.02	-0.03	0.00	0.04	0.00	-0.07
A	-0.07	-0.06	-0.00	-0.04	-0.03	0.04	0.08	-0.04

*P<0.05 **P<0.01 ***P<0.001

表17에 의하면 性格檢査의 性格要因 EST(안정성)와 人物畫 N 符號가 相關係數 $r = -0.15$ 로서 $P < 0.05$ 수준에서 逆相關關係를 나타내고 있어서 안정성이 높을수록 신경증적 노이로제적 증상이 낮다고 볼 수 있다. SOC(사회성)와 S符號와는 $r = 0.14$ 로 $P < 0.05$ 수준에서 關聯性을 보이고 있고, SOC와 C符號와는 $r = -0.24$ 로 $P < 0.01$ 수준에서 매우 높은 逆相關關係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성이 높을수록 정신적 갈등현상이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SUP(우월성)와 S符號와는 $r = 0.18$ 로 $P < 0.05$ 수준에서 의미있는 相關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V. 要約 및 結論

1. 要 約

本 研究는 국민학교 현장에 group dynamic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人物畫 技法을 유도하기 위해 신뢰도와 타당성이 인정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표준화 성격검사와 일본의 오오모도시게루 박사가 개발한 인물화 검사와의 관련성을 찾는데 그 目的이 있다.

이를 위해 표준화 성격검사와 인물화 검사를 같은 집단에다 동시에 실시해서 나타난 결과를 분석하여 비교하고 성격검사의 성격요인과 인물화 검사의 상징부호와 關聯지어 兩者間의 相關關係를 考察하였다.

測定道具로는 中央適性 研究所에서 製作한 標準化 性格 診斷檢査와 오오모도 시게루가 일본인을 대상으로 임상과정을 거쳐 만든 人物畫 檢査法을 사용하였다.

本 研究에서 考察한 具體的인 研究問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화 성격검사 실시결과에 의한 group dynamics를 분석한다.

둘째, 인물화 검사, 실시결과에 대한 group dynamics를 분석한다.

셋째, 표준화 성격검사와 인물화 검사 실시, 나타난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넷째, 성격진단검사의 성격요인과 인물화 검사의 상징부호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먼저 첫째 문제와 관련하여 표준화 성격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자 어린이 집단은 행동성, 사회성, 男向性, 책임성, 思慮性 등의 성격요인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고, 남자 어린이는 우월성, 안정성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 이는 남자 어린이가, 조용하고 침착한 면이 있는 반면 자기 과시적인 우월감이 있어, 비슷한 감정이 성향

으로 일관하지는 못하고 있고, 여자 어린이들은 명랑하고 활동적이면서도 진지하고 신뢰로운 행동적 특성을 띠고 있다.

둘째 문제와 관련하여 인물화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지표가 전체적으로 7에서 29까지 나타나 집단내 persnality에 대한 개인차가 심함을 알수 있다.

문제지표 평균이 5학년 남자가 16.51, 여자가 15.69이고 13세인 6학년인 경우 남자가 15.66, 여자가 14.43으로 일본의 경우 평균이 13세 남자 어린이가 13~14.4, 여자가 12~13점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좀 높은 편이지만 문화적 환경적 시대적 차이로 인한 것으로 문제성이 될만한 점수는 아니다.

상징부호를 분석한 결과, 남자 어린이 경우 S부호가 5.44개 M부호가 3.5개 C부호가 2.35개, F부호가 2.45개로 나타났고 여자 어린이인 경우, S가 4.69개, M이 2.71개, C가 1.47개 F가 1.94개로 남자 어린이들은 적극적이나 자아가 잘 통합이 안돼 불안정한 집단이라 할 수 있고, 여자 어린이 집단은 활달하면서도 안정감이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세째 문제와 관련하여, 두 검사의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5학년 여자 어린이 집단에서 자아 발동이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며 낙천적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6학년 남자 어린이에 있어서도 자아가 통합되지 않아, 정서가 불안정하다는 면에서 서로 비슷한 해석을 할 수가 있었다.

반면, 5학년 남자에 있어서 성격검사에서는 조용 침착한 가운데 높은 우월감으로, 든든한 자신감을 가졌다고 해석된 반면 인물화에서는 S가 5.7개, M이 3.8개, C가 2.4개, F가 2.4개로 정서가 불안정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어 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6학년 여자 어린이에 있어서도 성격검사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집단의 특성으로 정서가 안정되고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집단으로 평가된 반면 인물화에서는 S가 3.5개, M이 2.7개로 S가 M에 비해 큰 특성을 지니지 못해 비교적 소극적이고 의

존적인 특성이라 해석할 수 있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네째 문제와 관련하여 표준화 성격검사의 성격요인과 인물화 검사의 상징부호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결과 성격검사의 성격요인 EST(안정성)와 인물화 N부호가 상관관계수 $r = -.15$ 로서 $P < 0.05$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SOC(사회성)와 S부호와는 $r = .14$ 로 $P < 0.05$ 수준에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SOC와 C부호와는 $r = -.24$ 로 $P < 0.001$ 수준에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SUP와 S부호와는 상관관계수 $r = .18$ 로 $P < 0.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2. 結 論

教育現場에 있어서 集團의 力學 내지 力動性的의 파악은 보다 나은 教育의 成果를 위한 기본적인 教育活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現在, 國民學校 教育現場에 있어서 알맞은 뚜렷한 檢査方法이 없어서 教育활동에 많은 불편함이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 국민학교 교육현장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人物畫란 主題를 이용한 檢査法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일본의 오오도모 박사가 개발한 人物畫 檢査法과 우리나라 標準化 性格診斷檢査와의 關聯性을 찾는 것이 本 研究의 目的이라 할 수 있다.

本 研究의 目的에 비추어 考察한 研究 結果를 基礎로 結論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화 성격검사에서는 제일 높은 점수가 SOC(사회성)가 53.73 SUP(우월성)가 52.45로 그리 높은 특성의 점수는 아니지만 다른 성격 요인에 비교하여 볼때, 本 研究 集團은 친절하며, 사교적이고 자신감을 가진 집단이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인물화 검사에서는 의존적이고, 소극적인 M부호가 3.1개에 비해 자아가 강하고 적극적이고 낙천적인 S부호가 5.1개가 나왔으며 정신적 갈등을 나타내는 C부호가 1.92개 초조 불안을 나타내는 F부호가 2.19개로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나

초조하여 의존적인 특성도 내재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세째 性格檢査의 EST(안정성) 성격요인과 人物畫의 N부호, SOC(사회성)와 S부호, SUP(우월성)와 S호와는 상관계수 $r = -.15 \sim .18$ 로 $P < 0.05$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보였고 성격요인 SOC(사회성)와 상징부호 C와는 상관계수 $r = -.24$ 로 $P < 0.01$ 수준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성격검사에서 사회성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물화 검사에서는 정신갈등적인 C부호 점수가 낮아진다는 해석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서 우리나라 표준화 성격검사와 일본의 오오모도시게루 박사가 만든 인물화 검사와의 관련성은 남녀별 집단에서는 비교적 많은 항목에서 관련이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매우 높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의미있는 관련성이 있어서 오오모도 인물화 검사방법을 수정없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인듯 하고 상관되는 성격요인과 상징부호를 관련시켜 남녀별 분석기준을 따로 설정하여 보다 많은 대상에 대한 臨床實驗 및 現場研究가 이루어지면 머지 않아 우리나라에 알맞은 人物畫 檢査方法이 開發되리라 본다.



參 考 文 獻

- 金正(1991), 「兒童美術教育 研究」, 創知社.
- 金正(1989), 「兒童繪畫의 理解」, 創知社.
- 金正(1985), 「幼兒美術指導」, 創知社.
- 金貞圭·金玉煥(1986), 「教育心理學」, 螢雪出版社.
- 金在恩(1984), 「그림에 의한 兒童의 心理診斷」, 教育科學社.
- 金春一(1985), 「兒童美術論」, 미진사.
- 東京教育大學 教育學 研究室編(1975), 「教育學大典」, 宇南書館 教育學 研究室.
- 朴容憲(1975), 「學校社會」, 培英社.
- 朴運盛(1988), 「現代組織行動論」, 博英社.
- 朴乃會(1990), 「組織行動論」, 博英社.
- 李洙德외(1984), 「現代教育學概論」, 教育出版社.
- 李相魯외(1989), 「표준화 성격진단 검사」, 중앙 적성 출판사.
- 이장호·김정희(1992), 「집단상담의 원리와 실제」, 범문사.
- 張秉琳(1982), 「人間行動과 社會環境」, 集文堂.
- 全國教育大學美術教材 편집회(1985) 「美術教育」, 전국 교육대학 미술교재 편찬부.
- 鄭寅錫(1989), 「新教育 心理學」, 大旺社.
- 丁鍾植(1987), 「教育心理學」, 學文社.
- 崔宗寅(1988), 「兒童美術指導」, 螢雪出版社.
- 李皓永(1988), “精神遲滯兒와 一般兒童의 人物畫 表現特性에 관한 比較研究”, 碩士學位論文, 檀國大學校 教育大學院.
- 趙少艾(1988), “國民學校 美術教育의 實態와 效率的인 指導方法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弘益大學校 教育大學院.

崔聖淑(1991), “圖式化된 人物表現의 矯正指導에 關한 研究”, 圖光大學校 教育大學
院.

高橋雅春・高橋依子(1972), 「人物畫テスト」, 文教書院.

Buck, J. (1970), Thr House—Tree—Person Technique 〈Revised Manual〉, Cal.,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Cartwright, D. and Zander, A. (1960), Group Dynamics : Research and Theory,
Evanston, Ill. : Row, Petforson.

Lowenfield, Victor. (1964), Creative and Mental Growth, The Macmillan Company.



附 錄 1

인물화 검사(실험용 1)

이름 : 성별 : (남, 여) 국민학교 학년 :

〈지시〉 지금부터 이 도화지 네모 안에 사람 그림을 그리세요. 몸전체를 그려야
해요. 누구든지 좋으니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시간의 제한은 없으니까 생각대로
그려보세요.



210mm×280mm

1. 위 그림에서 제일 먼저 어느 부분을 그렸나요? ()
2. 위 그림에서 제일 나중 어느 부분을 그렸나요? ()

인물화 검사(실험용 2)

이름 : 성별 : (남, 여) 국민학교 학년 :

〈지시〉 이 도화지에는 앞장 남자를 그렸으면 이번에는 여자를 그리고 앞장에 여자를 그렸으면 이번에 남자를 그리세요.



210mm×280mm

1. 위 그림에서 맨 먼저 어느 부분을 그렸나요? ()
2. 위 그림에서 맨 나중 어느 부분을 그렸나요? ()

附 錄 2

〈人物畫 分析規準〉

부위	성 격 분 석 규 준	상징적 의미	부호	남	여	계
1 위 치	1. 상반(전체의 1/2)	· 낙천적	S			
	2. 하반(전체의 1/2)	· 비관적	M			
	3. 좌반(전체의 1/2)	· 내동적, 여성적	M			
	4. 우반(전체의 1/2)	· 외동적, 남성적	S			
	5. 상반우반	· 낙천적, 남성적	S			
	6. 상반좌반	· 낙천적, 여성적	S			
	7. 하반우반	· 비관적, 침정적	M			
	8. 하반좌반	· 비관적, 억제적	M			
2 대 소	9. 크다(2/3 이상)	· 자아강대	S			
	10. 작다(1/2 이하)	· 자아약소	M			
	11. 그림그린 사람 자신과 같은 성이 불균형하게도 크다.	· 자기과시	S			
	12. 자기와 같은 성이 불균형하게도 작다.	· 자아의 약소	Sch			
3 모 습	13. 행동이 수반되고 있다(달리고 있다)	· 신체활동에로의 강한 충동	F			
	14. 행동이 수반되고 있다(걸고 있다)	· 위험상태에 빠지기 쉽다.	F			
	15. 앉아 있다. 기대고 있다.	· 의존적 세력의 약소	M			
	16. 몸이 기울고 있다.	· 불안정, 불만	F			
	17. 선이 극도로 딱딱하다.	· 깊이 뿌리박은 곤란	S			
	18. 선이 극도로 부드럽다.	· 자아약소	M			
	19. 선이 기계적(線畫·기하학적 도형)	· 운동적 의미가 결여	X			
	20. 선이 극도로 가늘다.	· 신경질, 열등감	N			
	21. 선이 극도로 거칠다.	· 정신불안	Sch			
	22. 부위생략(머리, 동체, 팔, 다리, 네가지의 생략)	· 생략부위에 관계있는 갈등	C			

부위	성 격 분 석 규 준	상징적 의미	부호	남	여	계
4 표 화 순 서	23. 여기저기서 그리기 시작한다.	· 불안정, 신경적 반응	N			
	24. 본인과 같은 성을 나중에 그린다.	· 성에 혼란이 있음	C			
	25. 팔이나 손부터 먼저 그린다.	· 환경과의 접촉을 극도로 싫어하는 부적응 미자각	M			
	26. 팔이나 손을 맨 나중에 그린다.					
	27. 다리와 손을 먼저 그린다.	· 자아의 약소	M			
	28. 머리를 맨 나중에 그린다.	· 도피, 죄악감	F			
29. 얼굴을 맨 나중에 그린다.	· 대인관계의 혼란	C				
	30. 동체부터 그린다.		S			
5 머 리	31. 매우 크다. (동체의 1/2 이상)	· 공상에 의해 적극성, 무의식적, 지적인 것 만족	S			
	32. 작은 머리	· 강박시경증	Y			
	33. 뒤로 향한 머리(뒤통수)	· 분열증적, 편집성	Sch			
	34. 머리카락을 주의깊게 다루었음(모자를 씌우고, 모발을 밖으로 나오게 그린 것도 포함)	· 자기애적 동성애적	PS			
	35. 모발이 없는 남자	· 분열증적	Sch			
	36. 머리카락을 가볍게 흐려서 그린다.	· 겁쟁이, 풍부한 성격	M			
	37. 머리카락을 위로 세워서 그린다.	· 자아강대, 자기중심적	S			
	38. 머리카락을 매우 길게 그린다(머리술이 많은 것 포함)	· 성적 내향적, 적대공상	P.S			
	39. 머리카락을 까맣게 칠한다.	· 사고·공상에 불안이 내재	F			
	40. 머리카락이 얼굴 양쪽으로 느려뜨려졌다.	· 적의의 감정에 지배	C			

부위	성 격 분 석 규 준	상징적 의미	부호	남	여	계
머리	41. 야단스럽게 그려진 여상의 머리카락	· 조숙, 성적 불량화	PS			
6 얼굴	42. 얼굴 부분을 흐릿한 선으로 그렸다.		M			
	43. 얼굴을 다소 하향으로 그리고 눈을 날카롭게 그린다.		N			
	44. 험상궂은 표정		Sch			
	45. 얼굴에 주름이나 그늘을 그린다.		F			
	46. 특히 강조한 것(예: 화장한 얼굴, 여자같은 남자의 얼굴, 남자같은 여자의 얼굴)		Sch			
7 눈	47. 눈을 강조한다.	· 변질적, 호기심 과다	Sch			
	48. 크다.	· 공격적, 편집적, 죄악감	S			
	49. 눈동자의 생략 또는 결손	· 죄악감	F			
	50. 눈동자를 검게 그린다. 또는 세로로 그린다.	· 공격적· 적대적 자기주장	S			
	51. 작은 눈	· 외부세계에 주의 결여	M			
	52. 감은 눈	· 신체적 자기애	F			
	53. 남자상에 속 눈섭을 그린다.	· 조숙, 성적이상	PS			
8 코	54. 큰 코, 넓은 코	· 성적 발달, 성적 불능의 보상, 경멸·거부	PS			
	55. 코를 문질러서 그린다.	· 자위거세의 공포	PS			
	57. 작은 코 또 결손된 코	· 성적 갈등, 성적 미숙	C			
	58. 특히 두드러진 코구멍	· 공격적	S			
9 입	59. 큰 입	· 성적 이상	PS			
	60. 특수한 형태로 강조	· 공격적 충동에 기인하는 불안·우울증·알콜중독·전간	F			

부위	성 격 분 석 규 준	상징적 의미	부호	남	여	계
9 입	61. 입술의 강조	· 구순적 성욕	PS			
	62. 간단한 선으로 타원·별리고 있다.		M			
	63. 너무 작은 입		Sch			
	64. 이를 보이고 있다.		Sch			
	65. 혀를 보인다.		Sch			
10 턱	66. 특히 넓은 턱	· 사회적 우위, 공상적	S			
	67. 특히 좁은 턱, 옆얼굴에서 튀어나온 턱		M			
	68. 여像에서 큰 턱	· 성적 이상	PS			
	69. 여像에게 수염을 그린다.		PS			
11 귀	70. 특히 크다.	· 다른 사람의 비판 의식	N			
	71. 귀에 특수한 표현을 한다.		Y			
	72. 매우 작다.		S			
	73. 귀의 생략, 나쁜 위치에 그렸다.		M			
12 목	74. 길거나 가늘다. 75. 짧다.	· 분열증적 · 감정통제 곤란	Sch F			
13 동 체	76. 모가 낮다.	· 표현운동(남성적) · 발달지체(여성적) · 의식적 욕구, 불만 · 열등감 · 분열증적, 퇴행	S			
	77. 둥글다.		B			
	78. 넓다.		C			
	79. 좁다.		M			
	80. 가늘고 길며 평행선을 그을 동체		Sch			
81. 동체가 없는 것	· 자기에	Sch				
14 팔 과 손	82. 형상부터가 과장되어 있다.	· 손의 활동에 불만	Sch			
	83. 가늘다(간단한 선으로 되어 있다.)		M			
	84. 넓게 연 팔	· 강대함	S			
	85. 아랫 부분에서 넓어지는 팔		N			
86. 동체에서 튀어 나온 팔	· 완력 부족의 보상	M				

부위	성 격 분 석 규 준	상징적 의미	부호	남	여	계
14 팔 과 손	87. 길고 탄탄한 팔	· 완력 부족의 보상	Sch			
	88. 너무 긴 팔	· 과도한 야심	S			
	89. 동체에 밀착한 팔	· 소극적	S			
	90. 팔이 없다.	· 분열증적	Sch			
	91. 손이 없다.	· 무능, 부적응	C			
	92. 손가락을 폈다(때로는 그 늘지게 그렸다)	· 손의 활동에 불안	F			
	93. 주먹을 쥐었다.	· 억압된 공격성	F			
	94. 손을 크게 그린 것	· 강대함	S			
	95. 팔이 가슴 또는 앞에서 교 차	· 회의적	S			
	96. 팔을 뒤로 돌린다.	· 공격적	Sch			
	97. 손을 허리에 대고 있다.	· 성의 공포	PS			
	98. 검게 칠해진 손(또는 그늘 지게 하다)	· 자위 · 흠치기 · 싸움	F			
	99. 호주머니에 넣은 손 또는 감추어진 손	· 자위에 대한 죄악감	Sch			
	100. 손톱, 관절의 주의 깊은 스케치	· 강박증적	S			
101. 열쇠처럼 그려진 손	· 적의 공격	Sch				
102. 손과 관계 없는 손가락	· 유아적 공격	Sch				
103. 검게 칠해진 손가락	· 자위, 흠치기	F				
104. 다섯개 이상의 손가락	· 야심, 공격	C				
15 다 리 와 발	105. 다리가 길다.	· 정신적 미발달	B			
	106. 다리가 없다.	· 성적 불안	PS			
	107. 다리의 과장		S			
	108. 교차된 다리	· 성적 접근에 대한 방어	PS			
	109. 길이가 똑같지 않은 다리	· 충동과 자기	C			
	110. 하나로 된 다리	· 성적 불능	PS			
	111. 여윈 발과 투명한 팬티를 통해서 그린다.	· 갈등	C			
112. 큰 발	· 안정의 욕구	S				

부위	성격 분석 기준	상징적 의미	부호	남	여	계
15 팔 과 손	113 작은 발 114. 발을 벌렸다. 115. 발의 생략 116. 반대방향으로 향한 발 117. 발가락의 강조 118. 발가락을 감추거나 흐릿하게 그림(신을 신고 있을 때에는 적절히 판정)	· 위축 · 의존적 · 안정에의 보상 · 자기통제 결여 · 감정의 갈등 · 억압된 적대적 태도 · 위축 · 소극적 · 의존	M S S C S M			
16 의 복	119 주의깊게 그린다. 120. 나체화 121. 가슴의 포켓 강조 122. 단추의 강조(많이 달았다) 123. 넥타이에 주의를 기울였다. 124. 의복을 입고 있는 듯도 하고 나체인 듯도 하다.	· 애정 · 물질적 결손의 보상 · 어머니에의 의존	Sch PS F F PS Sch			
17 기 타	125 엉덩이를 둥글게 크게, 보통이상으로 그린다(성기 부분이 노출을 포함) 126. 다리 및 팔의 관절부를 그린다. 127. 어깨를 치켜 올렸다. 128. 무릎을 노출 129. 전신 및 그 주위에 그늘 같은 것을 그리고, 또 마루바닥이나 땅을 그린다. 130. 내장을 그렸다. 131. 해부도 132. 좌우가 극단적으로 균형을 잃고 있다.	· 분열증적 · 성격전체의 부조화 · 혼란	PS Sch S PS C X Sch Sch			

부위	성격 분석 기준	상징적 의미	부호	남	여	계
17 기 타	133. 한쪽 성은 정면, 다른 성은 옆면으로, 양성 모두 옆면으로 향했다.		F			
	134. 손에 뭔가를 쥐고 있다.		F			
	135. 뒤를 향한 상		F			
	136. 만화나 바보스러운 그림 (주의를 주어도 계속 그린다)		Sch			
	137. 절대로 그리기를 거부		Sch (Y)			
특 히 여 성	(1) 여상의 가슴을 특히 강조	· 구강적· 의존적 요구	PS			
	(2) 팔과 손이 길고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 보호적인 모상에 대한 욕구	F			
	(3) 여성적 특징이 표면적 혹은 상징적인 그림으로서 정성드려 그린 그림	· 두드러지게 좌절된 외디 프스적 감정	C			

(Abstract)

A Comparative Research on Group Dynamics Through
Draw-a-person Test
and Standardized Character Test

Yang Dong-Yeal

Fine Art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Boo Hyun-III

The present thesis aims at finding out the correlation between Standardized Character Test conducted in Korea today, and Draw-a-person Test developed by a Japanese, Dr. and at developing a new Draw-a-person Test Method, with the aim of both improving an individual's character among the group and grasping human environment to improve a group's activity, by arbitrating personal interaction in the elementary educational field.

To achieve this aim, both Standardized Character Test and Draw-a-person Test were given to a group made up of 90 girls and 105 boys in elementary school. And then the results of these tests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and analyzed. Also the mutual relation between these two tests was proved with correlation coefficient.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will b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5.

helpful in developing Draw-a-person Test Method suitable to our given condition.

These tests have not so much precisely the same but much similar results. In that these two tests have independent characteristic factors and symbolic notes, the conclusion that the present thesis draws has been very fruitful. To prove the above result with numerical value, the relation between these two tests is analyzed a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sult shows that the factor of character, EST in Standardized Character Test and N-note in Draw-a-person Test, SOC and S-note, SOC and C-note, SUP and S-note have meaningful mutual relation to each other. Accordingly, the present thesis has come to this conclusion: In the light of factor of character and symbolic notes, Standardized Character Test conducted in Korea is partly correlative with Draw-a-person Test.

In conclusion, this thesis makes several suggestions as followings: Firstly, analyzing standards by Draw-a-person Test suitable to our educational circumstances should be developed as soon as possible. Secondly, in the light of our reality of being poor in field studies on Draw-a-person Test, more studies should be made on it and a system of Draw-a-person Test should be conducted.